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年 8月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수지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Synonyms
in Education of Korean

2010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수지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 수 지

강수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주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재희 (인)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3
1.3. 이론적 배경	7
1.3.1. 유의어의 개념	7
1.3.2. 유의어의 유형	10
1.4.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	14
2.1. 한국어 교재에서의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	14
2.1.1. 한국어 교재에 실린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	14
2.1.2. 학습 단계에 따라 나타난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	15
2.2. 한국어능력시험의 급별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	27
2.2.1.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기준	27
2.2.2. 어휘·문법 영역의 문항 구성 및 문제 유형	29
2.2.3. 한국어능력시험의 급별 유의어군의 양상과 특징	31
제3장 유의어 교육의 현황과 교육 방안	35
3.1.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35
3.1.1.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	35
3.1.2. 유의어 교육의 현황	40
3.2. 유의어 교육 방안	46
3.2.1. 의미 차이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	46
3.2.2.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	50
3.2.2.1.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	50

3.2.2.2.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변별 분석	52
3.3. 학습 단계별 유의어 수업 모형	57
3.3.1. 초급 수업 모형	58
3.3.2. 중·고급 수업 모형	63
 제4장 결론	 69
 【참고문헌】	 71

표 목 차

<표 1> 유의어의 유형(유현경·강현화, 2001:247~251)	11
<표 2> 서울대학교 교재 <한국어>의 구성 및 특징	16
<표 3> 서울대학교 교재 <한국어>의 품사별 유의어군 양상	17
<표 4>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명사 유의어군	18
<표 5>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동사 유의어군	20
<표 6>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형용사 유의어군	21
<표 7>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부사 유의어군	23
<표 8> 단계별 유의어군(박재남, 2002:47~51)	26
<표 9> 한국어능력시험의 급별 평가 기준	28
<표 10> 어휘·문법 중 유의어·반의어·다의어의 단계별 문항 구성	30
<표 11>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단계별의 유의어군 양상	31
<표 12> <마치다-그치다>의 유의어군의 오용 실태(가은재, 2009:48)	38
<표 13> 실험 집단 A와 통제 집단 B의 생산 문장의 예(김정현, 2007:97~98)	39
<표 14> 설문조사 내용	40
<표 15> 설문조사 결과	41
<표 16> ‘부끄럽다’의 유의어군 의미 차이(김정현, 2007:76)	47
<표 17> <근처-옆>의 유의어군 성분 분석(박아름, 2009:52)	48
<표 18> ‘슬프다’군과 ‘기쁘다’군의 정도 차이 비교(강현화, 2001:62)	49
<표 19> ‘서운하다’의 유의어군 연어 정보(이지혜, 2006:92)	53
<표 20> ‘서운하다군’의 격자표	54
<표 21> <아름답다-예쁘다>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	54
<표 22> 결합 구성 차이에 따른 동사 유의어(문금현, 2004:83)	56
<표 23> 유의어군의 공통점	60
<표 24> 초급 단계에서 유의어 연습 활동 제시	61

<표 25> 연어 정보를 활용한 유의어 연습	65
<표 26> 유의어군 연습의 격자표	66
<표 27> 중·고급 단계에서 유의어 연습 활동 제시	67

그림 목 차

[그림 1] 유의 관계 양상(박재남, 2002:18, 재인용)	9
[그림 2] 한국어 교재의 품사별 유의어군 양상(박재남, 2002:34)	15
[그림 3]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 품사별 유의어군의 수	17
[그림 4] 초·중·고급 단계의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교사의 어휘 교육	35
[그림 5] ‘모두’의 유의어군 어휘망	37
[그림 6] 유의어 지도의 어휘 확장 유용성	42
[그림 7] 학습 단계에 따른 적절성	43
[그림 8] 단계별 유의어 목록의 필요성	44
[그림 9] 특별한 유의어 교수법 필요성의 유무	45

ABSTRACT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Synonyms in Education of Korean

Kang, suji

Advisor : Prof, Choe, Jae-hee,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aspects of characteristics of synonyms in Korean textbooks and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It analyses the current status of synonyms in education of Korean to prepare effective directions for teaching synonyms.

Chapter I examines theoretical backgrounds of synonyms and identifies the purposes of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Chapter II analyses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synonyms in Korean textbooks publish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hen synonyms are abstracted from Korean textbooks publish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The number of synonyms was 120 in beginner level, 163 in intermediate level, 189 in upper intermediate level and 204 in advanced level. According to parts of speech, there were 247 in nouns, 235 in verbs, 110 in verbs, 110 in adjectives, and 84 adverbs. The number of synonyms were the most in nouns followed by verbs, adjectives and adverbs. The characteristics of synonyms in Korean textbooks publish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synonyms on the high and the low relationships are presented in

beginner's step. As they may impose much burden to beginners, they should be properly arranged.

Second, the same synonyms are repetitively presented in beginner and intermediate steps. Though the frequency of synonyms is high, they should b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learner's ability to differentiate them according to learning steps.

Third, the number of synonym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creased in higher steps. Vocabulary can be effectively expanded using Chinese characters in higher levels.

Fourth, though meanings of new synonyms in <New Words> in advanced level textbooks are presented, there were no sentences that meanings of synonyms are differentiated.

Based on the results above, lists of synonyms should be presented step-by-step in Korean textbooks. If step-by-step synonyms are presented with examples and information on phrases of synonyms, learners can learn them for themselves. Teachers can teach them in an effective and organizing way.

When 11th and 14th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were examined, more questions on synonyms were found rather than polysemy and antonyms. Such results indicate that students should learn synonyms to anticipate learning effects of synonyms as their levels proceed and they should be learned in all the learning steps.

Chapter III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of teaching synonyms in Korean education. This study interviewed 60 teachers from colleges and universities using questionnaire on how helpful teaching synonyms is for vocabulary expansion, how synonyms are explained, in what steps they should be taught, and if it is necessary to have synonym catalogues for each level. As a result, teaching synonyms is very effective for vocabulary expansion, but teachers have difficulties in teaching them as there were no special teaching methods. For effective education based on the situation, this study presents a specific synonym education model using different meanings and phrases for beginners and intermediate students.

Finally, chapter IV summarizes the study and points out limitations and presents suggestions on further studies.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언어 교육의 역사에 있어서 청각구두식 교수법과 구조주의 접근법에서는 문형의 반복 연습과 정확한 발음 등을 강조함으로써 어휘는 읽기 교육을 하거나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학습하는 데 부차적인 요소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의사소통 접근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기 시작했다. 의사소통 접근법에서는 제2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어휘라고 규정하였다. Wilkins(1972)도 ‘문법이 없어도 의미는 어느 정도 전달되지만 어휘가 없으면 의미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보통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문장은 비문법적이지만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단어만 나열하더라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휘의 중요성은 Martin(1984)에서도 밝히고 있는바, 제2언어 학습의 초급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휘 오류는 주로 철자와 모국어 간섭에 의한 것이지만, 고급 단계로 갈수록 의미적, 문체적, 언어적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제2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단계 전반에 걸쳐 어휘를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어휘 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등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었다. 어휘 교육 중에서 유의어¹⁾ 교육은 1970년대 이래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충우(1994)에서는 한국어 어휘의 특징²⁾ 중 하나는 유의어가 많은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도 유의어라고 하였다. 이

-
- 1) 유의어는 학자에 따라 ‘부분 동의어’와 ‘완전 동의어’를 모두 합쳐서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동의어’를 ‘유의어’로 ‘완전 동의어’는 ‘동의어’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유의어를 ‘(주로 기본 의미가) 의미적으로 중첩되거나 포함되는 부분이 두 개 이상의 어휘’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도 ‘유의어’를 ‘완전 동의어’와 ‘부분 동의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 2) 이충우(1994)에서 한국어 어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의어가 많음, 동음이의어가 많음, 대우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함, 음운 교체에 의한 어감의 차이가 발달함, 개념어로는 한자어가 많이 쓰임, 기초 어휘에는 고유어가 전문 어휘에는 한자어가 발달함, 2·3·4음절어가 발달함, 체언이 격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지 않음 등으로 제시하였다.

는 조현용(2000), 유현경·강현화(2001), 임지아(2005), 김정현(2007) 등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유현경·강현화(2001:244)에서는 수업 현장에서 유의어군의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을 밝히고 있다. 또 유의어가 모든 상황에서 치환되어 사용되지 않으므로 오류³⁾가 생겨나고, 이런 이유로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유의어에 대한 변별 요구가 커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김광해(1993)에서는 유의어 교육이 학습자들의 어휘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어휘력⁴⁾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 유의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섬세한 의미 차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사고력 훈련의 도구가 되어 고도의 언어 구사능력인 예술적, 문화적 표현의 증력까지 성숙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의어 교육은 성공적인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의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연구 성과로는 유의어의 개념, 유형, 유의어 성립 조건, 품사별 유의어의 의미 차이 분석에 관한 것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⁵⁾와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단계별 유의어 양상과 특징 등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유의어 교육과 유의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의어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3) 일반적으로 ‘오류(error)’는 ‘실수(mistake)’와 구별된다. ‘실수’가 일회적이라면 ‘오류’는 체계적으로 반복적인 습관의 형성에 따른 것이라고 이정희(2001:261)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4) 김광해(1993)에서 ‘어휘력’이란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사용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언어사용자가 어떤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 어휘의 형태, 의미,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휘력의 구조를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유의어에 대한 학습은 질적 능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 양적 능력 : 어휘량

(2) 질적 능력

a.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① 단일 어휘소의 의미(단어의 의미, 多意)
 ②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숙어, 속담, 四字成語 등)
 ③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

b.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① 유의·반의관계
 ② 공기관계

5)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어휘 확장이나 어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의어를 제시할 때가 많은데 이때 교사는 유의어 설명 시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한국어> 교재에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효율적인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어휘의 특징에 따라 유의어, 다의어, 반의어 등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다. 어휘 교수법 중에서 유의어를 이용한 어휘 교수는 학습자의 어휘 확장을 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의어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국어학적 연구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국어학적 연구로는 홍영모(1976), 김용석(1981), 김광혜(1987), 임지룡(1992), 김성화(1993, 1994, 1995, 2000, 2001, 2003), 김준기(1999), 박종갑(1996)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의어의 유형 및 성립 조건, 개념, 범주, 판별 기준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유의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김광혜(1987)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유의어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국어 교육 전반을 다루면서 유의어 어휘를 다룬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 편찬을 위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유의어의 변별을 통해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먼저 한국어 교육 전반을 다루면서 유의어 어휘를 다룬 연구로는 한정일(1999), 조현용(2000), 후옥문(2003), 임지아(2005), 이우승(2007), 나삼일(2008), 가은재(2009) 등이 있다.

한정일(1999)에서는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다의어, 동음어, 유의어, 반의어, 상하 관계 어휘 등의 어휘 교수 방안이 다루어졌다. 이 방안은 이미 학습한 어휘와 새로 학습한 어휘 사이의 연계 관계를 통해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한다. 그러나 의미 관계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은 개별 어휘의 의미 차이를 변별할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이우승(2007)에서는 한국어 어휘의 특징에 따라 단어의 의미 관계, 형태 관계, 어종 관계, 어휘의 문화 교육적 특성⁶⁾ 등으로 나누어 연구되었

다.

조현용(2000)은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역사와 현황, 기본 어휘 선정에 관한 문제, 어휘 중심의 한국어 교재 교과 구성, 어휘 중심 학습법에 대한 실제적인 교수법을 비롯하여 어휘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어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 연구는 어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큰 의미가 있는바, 많은 교육 현장에서 유의어를 이용한 어휘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의어를 이용해서 어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의어 교육에서 각 등급에 따른 유의어 어휘 범위를 한정시켜서 교육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후옥문(2003), 임지아(2005), 가은재(2009)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중심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방법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후옥문(2003)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 학습 시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관용어, 다의어, 경어, 유의어, 의성어·의태어, 한자어, 연어 교육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어휘의 특징에 따라 문화적 배경 설명을 통한 교육, 문맥이나 상황을 통한 교육, 비교를 통한 교육, 읽기를 통한 교육,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 교실 활동을 통한 교육 등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삼일(2008)에서는 어휘 중심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보았는데,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등의 어휘 특징에 따른 학습 방법이 학습자가 가장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 관계를 이용한 어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후옥문(2003), 임지아(2005), 나삼일(2008)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른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은 유의어 사전 편찬을 위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김광해(1998), 신현숙(1998), 양명희(2007), 송현주·최준(2008) 등이 있다.

김광해(1998)에서는 사전 뜻풀이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단어의 뜻을 더욱 정교하게 풀이하기 위하여 유의어의 의미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6) 문화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표현어, 나라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관한 교육으로 상징어, 색에 담겨있는 한국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는 방법으로 색채어가 있다. 또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보는 남녀관,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친족관, 단어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유래어 등이 있다(이우승, 2007:56~62).

하였다. 또한 유의어군을 비교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해 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쉽게 가려낼 수 있는 틀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신현숙(1998)은 한국어 어휘 정보와 의미 사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어 의미 사전에 등재할 어휘 목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재할 어휘 항목의 분류 및 배열 기준을 정하고, 어휘 항목의 의미 정보 기술 방법과 화용 정보 기술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떤 의미 사전이 필요한가를 언급하고 있다.

양명희(2007)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푸르넷초등사전』 등에서 동의어와 유의어 처리가 서로 다름을 지적하고, 이를 통일시키기 위해 뜻풀이가 정교하고 풍부한 용례가 있는 유의어 사전이 만들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송현주·최준(2008)은 학습자 말뭉치⁷⁾를 통해 오류를 분석하고 교육용 유의어 사전 편찬을 위해 표제어를 선정해야 됨을 언급하고 있다. 또 실제로 사전에서 유의어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사용역 차이에 따른 유의어군들의 의미, 오류, 용례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의어의 변별을 통한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현화(2001, 2005), 유현경·강현화(2001), 박재남(2002), 김은영(2004), 문금현(2004), 봉미경(2005), 이지혜(2006), 김정현(2007), 최경아(2007), 이정미(2007), 박아름(2009), 이연경(2009), 최화정(2009), 김은진(2009) 등이 있다.

강현화(2001), 봉미경(2005), 최경아(2007), 최화정(2009)에서는 부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현화(2001)은 시간 부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격자틀(grid)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봉미경(2005)에서는 시간 부사어의 유의어군 ‘방금’과 ‘금방’을 변별하기 위해 두 어휘의 문법적 지위, 의미, 문법적 제약, 연어 정보, 문체적 정보, 빈도 정보 등의 어휘 정보를 분류하고 있다.⁸⁾ 최경아(2007), 최화정(2009)에서

7) 말뭉치(corpus)에는 학습자 말뭉치와 교육용 말뭉치가 있는데 일반적 의미에서 ‘학습자 말뭉치’가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된 말뭉치로서 ‘오류 말뭉치(error corpus)’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김정남, 2004:180). 이는 외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온전하게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산출해 내는 오류 문장들을 주로 모아 놓은 성격의 말뭉치이다.

8) 봉미경(2005)에서 문법적 지위는 ‘방금’에 관형격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이거나 ‘금방’에 부사격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것은 ‘방금, 금방’이 명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 분석에서는 ‘방금’과 ‘금방’이 유의관계를 가지는 것은 발화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 문장에서도 교체 가능하다고 보았다. 문법적 제약은 기준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방금’과 ‘금방’은 완료상이나 과거에 지속

도 시간 부사를 중심으로 유의어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최화정(2009)는 유의어군의 말뭉치(corpus)의 용례를 바탕으로 부사 유의어의 목록을 만들고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한국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강현화(2005)는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는 기초 감정 형용사를 중심으로, 김정현(2007)은 한국어 고빈도 감정 형용사를 중심으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지혜(2006)은 심리형용사 29쌍⁹⁾을 선정한 후, 연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사전 기술 연구를 제시하였다. 김은진(2009)에서도 형용사 유의어를 제4유형¹⁰⁾으로 나누어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외 박아름(2009)에서는 명사를 중심으로 의미 차이를 분석을 하였다. 김은영(2004)에서는 감정 동사 ‘즐겁다’와 ‘무섭다’의 유의어를 중심으로 명사와의 공기 관계를 통해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다.

유현경·강현화(2001)에서는 유의어 어휘 교육에 학습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어휘의 집합을 유사 어휘군 개념으로 규정하고, 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몇 개의 유사 어휘군을 대상으로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박재남(2002)에서는 유의어를 대상으로 유의어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류 기준은 크게 의미적 관점, 화용적 관점, 통사적 관점 등 세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한국어 교재 10종에서 유의어를 품사별로 분류하여 추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연경(2009)는 시트콤을 활용하여 유의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킨 후 유의어 의미 변별 방법을 이용해 차이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시트콤을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 장비의 구축, 교사가 수업을 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보고

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인다고 설명하였다. 주요한 연어 정보로는 ‘방금, 금방’ 모두 ‘이제, 이제’ 등이 선행하여 쓰이고, ‘방금’은 ‘방금 전’과 같은 연어 구성으로도 쓰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문어체적 문장에서는 ‘방금’이 자연스럽게 쓰인다고 설명하였다. 말뭉치 빈도에서는 ‘금방’이 훨씬 자주 쓰인다고 보고 있다.

9) 이지혜(2006)에서는 선정한 29쌍의 유의어군은 가증스럽다군, 가없다군, 감사하다군, 갑갑하다군, 걱정스럽다군, 경이롭다군, 고단하다군, 고통스럽다군, 귀엽다군, 귀찮다군, 기막히다군, 기쁘다군, 낯설다군, 대견스럽다군, 두렵다군, 따분하다군, 멋쩍다군, 못마땅하다군, 미덥다군, 미심쩍다군, 분통하다군, 불쾌하다군, 비통하다군, 서운하다군, 쓸쓸하다군, 우습다군, 우울하다군, 지겹다군, 흐뭇하다군 등을 바탕으로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10) 김은진(2009)에서는 제1유형의 중심의미와 중심의미, 주변의미와 주변의미 모두에서 유의관계가 성립하는 유형, 제2유형의 중심의미와 중심의미 사이에서만 유의관계가 성립하는 유형, 제3유형의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사이에서 유의관계를 이루는 유형, 제4유형의 주변의미와 주변의미 간에 유의관계가 성립하는 유형으로 나누었다. 형용사의 유의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1차적인 의미(중심의미)끼리만 유의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간에도 유의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많다고 보고 이러한 유형을 나누어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다.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유의어 교육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부사, 형용사, 동사, 명사의 유의어 의미 변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어의 연어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대부분에서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유의어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는 거의 볼 수 없다. 유의어 교육 방안에 있어서도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 설명으로만 많이 치중되어 실제 교실 환경에서 유의어 교육을 직접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유의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 따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의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이론적 배경

1.3.1. 유의어의 개념

유의어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어휘들을 지칭하는데, 흔히 ‘동의어’라고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동의어 혹은 유의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한 개념과 성립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의어는 ‘synonym’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에 대해 동의어, 유의어, 유사어 등 학자마다 다르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synonym’을 동의어라고 보는 국내 학자들은 임지룡(1992), 이익섭(1993), 박종갑(2001), 최재희(2007) 등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동의 관계(synonymy)는 둘 이상의 어휘소가 동일한 의미를 지닐 때 성립되며, 동의 관계에 있는 어휘소들을 동의어(synonym)¹¹⁾로 분류하고 있다.

최재희(2007)에서는 동의 관계를 함의(entailment) 관계를 이용하여서 정의하고

11) ‘synonym’을 동의어라고 보는 입장은 임지룡(1992), 이익섭(1993)에서도 볼 수 있다. 임지룡(1992:137)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모든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하고 개념, 연상, 주제의 의미가 동일한 것을 동의어라고 하였다. 이익섭(1993:184)에서는 동의어란 형태가 다른 별개의 어휘들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지시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있다. 즉,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호 함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휘 항목 A가 B를 함의하고, 또한 B가 A를 함의하면 이 둘의 관계는 상호 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때의 두 어휘 항목은 동의 관계가 된다고 하였다.

- (1) 아내:마누라 사람:인간 속옷:내의
오누이:남매 빛깔:색깔

위와 같이 두 단어가 상호 함의 관계가 되려면, 각각의 의미자질이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는 의미자질을 [[+배우자], [-남성]]과 같은 의미 자질을 가지는데 <마누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들 단어 쌍은 상호 함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동의 관계에서 ‘동일한 의미’에 대하여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완전 동의’와 ‘부분 동의’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기도 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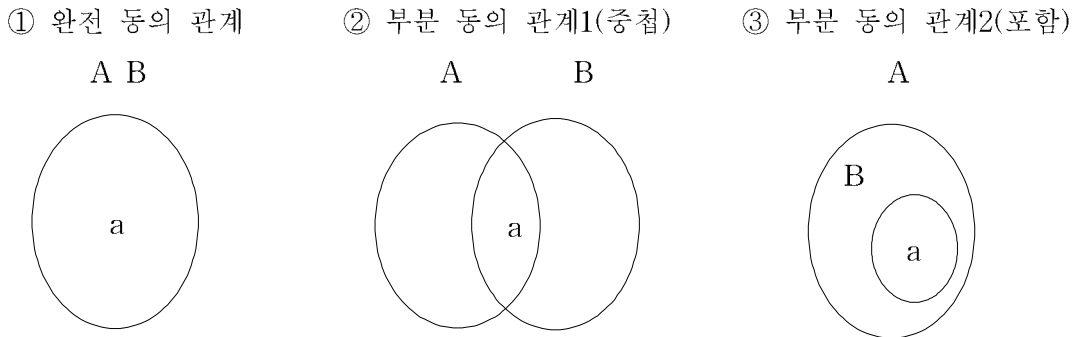
‘완전 동의 관계’란 어휘 A, B가 지시적 의미와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 또는 인지적 의미(cognitive meaning))가 같고, 모든 맥락에서 상호 교체가 가능한 의미 관계를 말한다. ‘부분 동의 관계’란 동일 지시 대상을 갖더라도 동일 문맥에서 교체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동의 관계는 보통 상호 교체될 수 없는 맥락이 쉽게 볼 수 있는 점에서 ‘부분 동의 관계’를 ‘유의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최재희, 2007:45~46).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을 논하는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유의어’는 ‘완전 동의어’와 ‘부분 동의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강현화, 2005:46). 따라서 유의어를 ‘(주로 기본 의미가) 의미적으로 중첩되거나 포함되는 부분이 두 개 이상의 어휘’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조현용(1999:273), 박재남(2002), 유현경·강현화(2003), 이용아(2005), 임지아(2005), 이지혜(2006), 김정현(2007), 나삼일(2008), 이연경(2009) 등에서도 유의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12) 다음은 ‘완전 동의 관계’와 ‘부분 동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예문이다. ①은 ‘완전 동의 관계’이고, ②는 ‘부분 동의 관계’이다(최재희, 2007:45~46).

- ① a. 강원도 <옥수수>가 많이 난다.
b. 강원도 <강냉이>가 많이 난다.
② a. 그대는 나의 <태양>.
b. *그대는 나의 <해>.

박재남(2002)에서는 유의어를 ‘개념적 의미가 비슷하며 최소한 한 문장 안에서 문장의 진리치가 바뀌지 않게 치환될 수 있는 단어들’로 규정하고 있다.¹³⁾ 서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어휘들을 적용범위에 따라 내포 관계, 중첩 관계, 상보 관계, 접속 관계로 분류하였다. 이 중 유의 관계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통적인 적용 영역을 가지는 관계이므로 이를 다시 세 가지 양상으로 [그림 1]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유의 관계 양상(박재남, 2002:18, 재인용)

위의 [그림 1]에서 유의어의 세 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1 ①]은 외연적 의미뿐 아니라 내포적 의미까지 동일한 ‘완전 동의어’의 경우이다. 이 경우의 예로 ‘사거리, 네거리’, ‘가물, 가뭄’ 등이 있는데, 이는 어휘 간의 관계만 확실하게 인지하면 학습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휘의 의미가 위의 [그림1 ②]의 경우처럼 중첩되면 유의어는 의미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중첩의 유의 관계의 예는 ‘얇다, 연하다’가 있고, 이러한 경우는 공통적인 맥락(얇은/연한 색, 얇은/연한 화장)과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맥락(마음이 얇다, 생각이 얇다)이 있다. [그림 1 ③]의 경우는 포함되는 부분 유의어로 볼 수 있다. 봉미경(2005:102)에서는 ‘약하다, 취약하다’를 포함의 유의 관계로 보았다. ‘약하다’는 넓은 범위의 명사를 서술하는 데 쓰이고(마음이 약하다, 몸이 약하다), ‘취약하다’는 구조나 능력에 대해서

13) 유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완전 유의어와 부분 유의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둘 인상의 어휘 항목이 개념적 의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에서도 완전히 일치하여 모든 문맥에서 의미상의 변화 없이 치환될 수 있는 관계를 완전 유의어라 하고, 부분 유의어는 대부분 서로 같은 의미 자질의 집합이지만 함축적 의미나 변형 생성 문법에서 말하는 선택 제약(selection restriction)등의 자질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박재남, 2002:20~21, 재인용).

만 쓰이므로(경쟁력이 약하다/취약하다) ‘취약하다’가 ‘약하다’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림1 ②]과 [그림 1 ③]에서 보듯이 중첩되거나 포함이 되면 부분 유의어의 경우는 학습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유의어’는 ‘완전 동의어’와 ‘부분 동의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미적으로 중첩되거나 포함되는 부분이 두 개 이상의 어휘로 규정할 수 있다.

1.3.2. 유의어의 유형

유의어의 유형은 학자마다 분류 기준이 다르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의어의 유형들이 제시되었다. 유의어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형성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Jackson(1988:68~74)에서는 유의어의 유형을 ‘지리(방언)’, ‘문체(공식-비공식)’, ‘직업분야(전문직-일상직)’, ‘태도(내포)’, ‘감수성(금기어)’과 같은 5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⁴⁾

유의어의 의미 차이에 관해서는 Collinson(1939)가 제시한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에 관한 유형이 널리 알려져 있다(김광해, 1998:152, 재인용).

(2)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 유형

- a. 한 쪽이 더 일반적이다.
- b. 한 쪽이 더 강하다.
- c. 한 쪽이 더 감정적이다.
- d. 한 쪽이 도덕적으로 더 중립적이다.
- e. 한 쪽이 더 전문적이다.
- f. 한 쪽이 더 문어적이다.
- g. 한 쪽이 더 구어적이다.
- h. 한 쪽이 더 방언적이다.
- i. 한 쪽이 어린이말이다.

14) 임지룡(1992:137~139)에서는 유의어의 유형을 방언, 문체, 전문성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Jackson(1988:68~74), 임지룡(1992:137~139) 등을 참조.

이와 같은 분류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일반성, 감정, 도덕, 전문성, 문체, 방언 등에 기준을 두고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광혜(1987)은 『유의어·반의어 사전』을 편찬하면서 유의어의 유형을 추출하였다. 이는 실제 유의어군의 성격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추출한 높임말, 낮춤말, 비유적 표현, 속어, 완곡어, 특수어, 유아어, 준말, 방언, 정감적 표현, 외래어 등의 항목으로 유의어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김광혜(1987)의 분류와는 다르게 유현경·강현화(2001:247~251)에서는 유의어의 유형을 차용, 금기, 사회적, 문체적, 형태론적 변이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누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유의어의 유형(유현경·강현화, 2001:247~251)

유형	분류 내용
차용에 의한 유의어	고유어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 한자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
사회적 변이에 의한 유의어	방언, 사회계층 간 언어, 성별에 따른 언어(남성·여성어), 연령에 따른 언어(아동·성인·노인어), 준비관계에 따른 언어 예) 옥수수/강냉이, 밥/맘마, 있다/계시다
금기에 의한 유의어	금기에 의해 지시물에 여러 형식이 결합되어 생긴 언어 예) 변소/뒷간/화장실, 천연두/마마
형태론적 변이에 의한 유의어	어휘의 음절을 도치 또는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언어 예) 或間/間或, 전라남도/전남, 일본제국/일제
문체적 변이에 의한 유의어	의미는 비슷하나 글말과 입말에 각각 더 많이 쓰이는 언어

박재남(2002)에서도 유의어의 유형을 크게 ‘어종(語種), 위상, 형태’로 나누고 있다.¹⁵⁾ 어종별 유의어의 유형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이고, 위상에 따른 유의어는 준비, 직업, 연령, 성별, 지역, 금기 등 사회적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유의어의 유형

15) 유의어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재남(2002:22~25)를 참조.

이며, 형태에 따른 유의어는 한 음절이 도치되거나 음절이나 음운이 단축·생략되거나 음운이나 음절이 첨가되어 형성된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김광해(1987), 유현경·강현화(2001), 박재남(2002) 등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유의어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어 교육에서는 유의어의 유형을 크게 어종, 사회, 형태, 문체 등에 따라 나눌 수 있었다. 유의어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유의어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1.4. 연구 내용 및 방법

한국어 교육에서 유의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유의어 양상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학습 단계별 유의어 양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매 과마다 학습해야 할 단어와 문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에 나온 문법을 통해 유의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 학습 단계별 유의어군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어 색인이 있어서 유의어를 목록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언어기관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의 참가자 자료 모음집을 보면 55개의 참가 기관 중에서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세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14개의 언어기관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 각 기관에서는 기관 자체에서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거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의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유의어 추출은 박재남(2002)에서 제시된 한국어 교재 10종을 바탕으로 660개 군의 유의어군 목록¹⁶⁾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교재 <한국어> 1권부터 4권까지 각

단계별 유의어군의 양상을 정리하고 그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Korean Proficiency Test)은 1급부터 6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 매년 2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1·2급은 초급, 3·4급은 중급, 5·6급은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학기관 및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출제되는 유의어군의 양상과 특징도 학습 단계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한국어 수업 중 유의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유의어 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⁷⁾ 이는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국어 교사들의 유의어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습 단계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초급 및 중·고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의어 수업 모형도 제시하고자 한다.

16) 박재남(2002)에서 한국어 교재 10종에 나타난 어휘 목록은 서상규(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개발(한국어 세계화 연구, 문화관광부 제출 중간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이다. 유의어 추출은 김광해(2000)의 『비슷한말 반대말 사전』을 중심으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슷한말 어휘 목록도 참고하여 추출하였다.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어 회화> 1~6, 한국어문화연수부 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1~6, 한국어문화연수부 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1~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편, 대한민국 문화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국어>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조선어입문> 1~2, 油谷幸利, 히쯔지, 書房

·<조선어입문강좌> 1, 早川嘉春, 계림관서점

·<조선어의 입문>, 菅野裕臣, 백수사

·<기초조선어>, 서상규, 백제사

17) 설문지 내용 및 설문 방법에 대한 사항은 제3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였다.

제2장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

2.1. 한국어 교재에서의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

2.1.1. 한국어 교재에 실린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

한국어 교육에서 유의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¹⁸⁾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 실린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학습 단계별로 유의어가 어떤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급 단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유의어들을 품사별로 추출하여 그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도 유의어 교육이나 학습을 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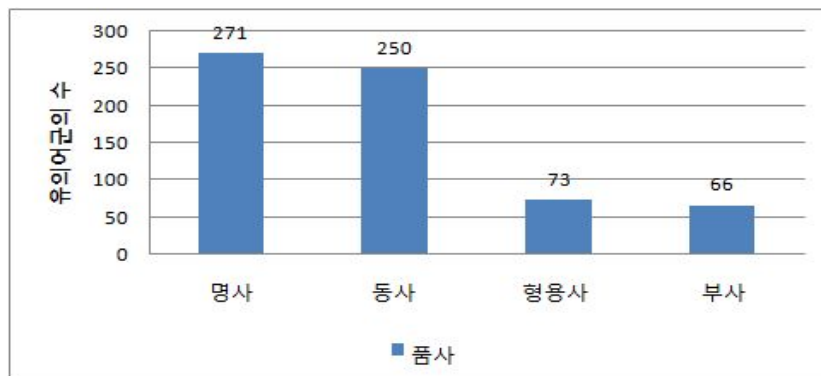
한국어 교재에서 유의어 추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유의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의어 목록이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광해(1998)에서도 유의어 교육과 유의어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해서는 유의어를 선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사들이 유의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유의어 목록을 추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박재남(2002)에서는 유의어 추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밝히고, 한국어 교재 10종을 바탕으로 유의어 목록을 추출하였다. 한국어 교재 10종에서 추출한 유의어군은 660개군이였다.¹⁹⁾ 교재 10종의 어휘 목록에서 총 3,738개의 명사, 1,229

18) 임지아(2005)에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의 어휘 가운데 유의어를 추출하는 방법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어휘를 가장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19) 박재남(2002)에서 유의어 추출 방법은 김광해(2000)의 『비슷한말 반대말 사전』을 중심으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슷한말 어휘 목록도 참고하여 추출하였다. 먼저 한국어 교재 10종 어휘에서 유의어를 추출할 때에는 그 목록에 ‘가게’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위에서 말한 사전을 참고하여 ‘가게’의 유의어를 모두 모은다. ‘가게’의 유의어로 등이 ‘상가, 상점, 상전, 가갯방,

개의 동사, 430개의 형용사, 431개의 부사에서 유의어군을 추출하였다.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한 유의어군의 수를 품사별로 분류하면 명사 271개군, 동사 250개군, 형용사 73개군, 부사 66개군 등 유의어군의 수가 명사 > 동사 > 형용사 > 부사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래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품사별 유의어군 양상이다.



[그림 2] 한국어 교재의 품사별 유의어군 양상(박재남, 2002:34)

위의 [그림 2]와 같이 품사별 유의어군은 한국어 교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품사별 유의어군의 공통점과 의미 차이를 학습한다면 많은 어휘를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의어는 어휘 학습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학습 단계별로 품사별 유의어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재에 유의어 목록이 제시된다면 교사는 체계적인 유의어 교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도 스스로 유의어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1.2. 학습 단계에 따라 나타난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

학습 단계에 따라 한국어 교재에서 어떤 유의어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유의어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보통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어휘량 뿐만 아니라 어휘의 수준도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가갯집, 전방, 접방, 점포, 전포, 상호'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10종 어휘 목록에 속하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가게'의 유의어군을 만들었다.

서 어떤 유의어 양상과 특징이 나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서 나타난 유의어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서울대학교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매 과마다 학습해야 할 단어와 문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교재에 나온 문법을 통해 유의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 학습 단계별 유의어군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 단어 색인이 있어서 유의어를 목록화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의 참가자 자료 모음집을 보면 55개의 참가 기관 중에서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세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14개의 언어기관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에 따라 한 단원의 구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 서울대학교 교재 <한국어>의 구성 및 특징

교재	과	구성	어휘량
한국어 1	총 30과	「본문」, 「발음」, 「문법」, 「어휘와 표현」, 「연습」	450
한국어 2	총 33과	「본문」, 「발음」, 「문법」, 「어휘와 표현」, 「연습」	700
한국어 3	총 34과	「본문」, 「문법과 표현」, 「연습」	900
한국어 4	총 35과	「본문」, 「문법과 표현」, 「연습」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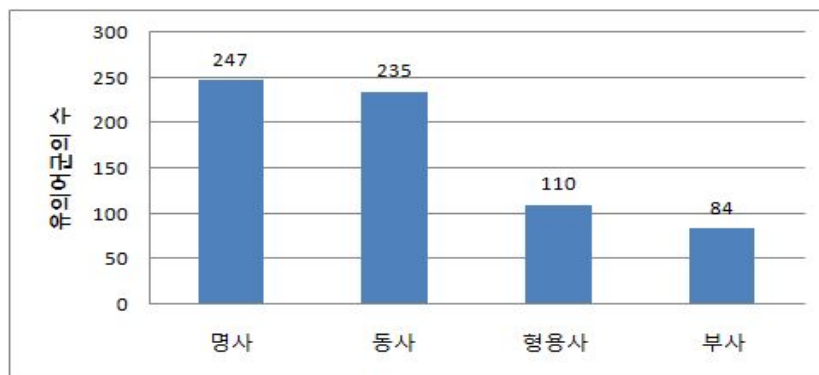
서울대 <한국어>는 초급 단계부터 중급 단계까지는 한 단원이 「본문」, 「발음」, 「문법」, 「어휘와 표현」, 「연습」으로 구성되고, 중·상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는 「본문」, 「문법과 표현」, 「연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어휘 부분을 보면 초급 단계부터 중·상급 단계까지는 각 과의 본문 밑에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였고, 고급에서는 새 단어를 각 과의 마지막 부분에 뜻풀이와 함께 제시하였

다. 하지만 교재에서는 유의어를 단순히 비슷한 말로 뜻풀이하여 의미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설명이나 예문은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의어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학습 단계별 유의어군을 품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 서울대학교 교재 <한국어>의 품사별 유의어군 양상

급별 교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총합
한국어 1 (초급)	51	33	24	12	120
한국어 2 (중급)	54	52	32	25	163
한국어 3 (중·상급)	62	76	27	24	189
한국어 4 (고급)	80	74	27	23	204

서울대학교 <한국어>에서 유의어군의 수는 초급 단계에서 120개군, 중급 단계에서 163개군, 중·상급 단계에서 189개군, 고급 단계에서 204개군 등으로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유의어군의 수도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어군의 수를 품사별로 분류하면 명사 247개군, 동사 235개군, 형용사 110개군, 부사 84개군 등 유의어군의 수는 박재남(2002)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 > 동사 > 형용사 > 부사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²⁰⁾



[그림 3]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 품사별 유의어군의 수

20) 유의어군의 수를 품사별로 분류하면서 각 단계에 따라 똑같은 유의어군이 나타나도 하나의 유의어군으로 처리하였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유의어군을 각 초급, 중급²¹⁾, 고급 단계별로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²²⁾

<표 4>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명사 유의어군

초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게(1)-상점 · 가족(1)-식구 · 값(1)-가격 - 금액-대금-액수 - 요금 (1)-정가 · 강의(1) - 수업(1) · 개월(1) - 달 · 길(1) - 도로-거리 · 거스름돈(1)-잔돈 · 걷다(1)-걸어가다 - 걸어오다 · 계절(1)-철 · 극장(1)-영화관 · 나(1) - 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1) - 일기-기후 · 노래(1)-곡(1) · 댁(1)-집(1) · 돈(1)-현금 · 머리(1)-머리카락 · 명(1) - 분(1) · 물건(1)-물품-상품-제품 · 밖(1)-바깥 · 밥(1) - 진지 · 사람(1)-인간 - 인물 · 생일(1)-생신
중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2)-종류 · 개월(2)-달(2) · 경기(2)-시합 · 곳(2) - 군데 · 광고(2)-선전 · 기간(2)-날짜-시일-일시 - 일자-때 · 기분(2)-감정 - 느낌-감각 · 기사(2)-운전사-운전수-운전자 · 기후(2)-날씨-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3)-밖-표면 · 관심(3)-흥미 · 교통비(3)-차비 · 근처(3)-부근-옆-주변-주위 · 글씨(3) - 글자(3) · 금액(3) - 액수 - 요금 - 정가 - 가격 - 값 - 금액 · 기계(3)-기구 · 기온(3)-온도 · 길(3)-도로-거리(3)

21)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어2>는 중급과 <한국어3>는 중상급으로 나뉘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상급을 중급에 포함하였다.

22)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한 유의어군을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였다. 앞부분부터 22개의 유의어군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머지 유의어군은 본 연구의 부록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2) - 조국-국가 · 나이(2)-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냄새(3)-향기-향 · 노인(3)-늙은이
고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4)-값-금액-대금-액수-요금-정가 · 가슴(4)-내면-마음-심정 · 가운데(4)-중간-중심-중앙-한가운데-핵심 · 개개인(4)-각자 · 결과(4)-성과 · 관객(4)-관람객-관중 · 교외(4)-근교 · 국가(4)-나라-조국 · 규모(4)-크기 · 기술(4) - 솜씨-기능 · 기후(4)-날씨-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4)-내역 · 능력(4)-실력 · 단체(4)-모임 · 대중(4)-민중 · 덕분(4)-덕택 · 동기생(4)-동창 · 뒤(4)-후 · 목숨(4) - 생명(4) · 목적(4)-목표 · 무시(4)-괄시 · 문화(4)-문명-문물

초급 단계에서는 <밥-진지>, <집-택>, <생일-생신> 등 준비 관계에 따른 명사 유의어가 많이 제시되었다. 중급 단계에서는 <값(1)-금액(3)>, <길(1)-거리(3)> 등 초급 단계에서 배운 유의어가 중급 단계에서 반복되어 나왔다. 이는 이미 배운 유의어군과 연계하여 의미 차이까지 학습해야 됨을 나타낸다. 고급 단계에서는 <능력-실력>, <결과-성과>, <목적-목표> 등의 한자어 간의 명사 유의어가 많이 나타났다.

위의 유의어군 중에서 <가게-상점>, <거리-길-도로>, <거스름돈-잔돈>, <개월-달> 등은 초·중·고급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명사 유의어군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남(2002:37)에서는 한국어는 고유어가 한자어와 일대 다 대응을 이루는 유의어가 많으므로 고유어 간의 유의어군이나 한자어 간의 유의어군보다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군이 많다고 하였다.

<표 5>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동사 유의어군

초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다(1)-나가다(1)-외출하다(1) • 가르치다(1)-지도하다 • 계시다(1)-있다(1) • 고르다(1)-뽑다-선택하다-채택하다-택하다-택일하다 • 공부하다(1) - 배우다(1)-익히다 - 학습하다 • 구경하다(1)-관광하다-관람하다-유람하다 • 끝내다(1)-다하다-맺다-그만두다-마치다-치다-멈추다 - 중단하다-포기하다 • 내다(1)-지급하다 - 치르다 - 납부하다 • 내리다(1)-인하하다 • 도착하다(1)-상륙하다-착륙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돕다(1)-거들다 • 드시다(1) - 먹다(1)-잡수시다(1) - 식사하다(1) • 떠나다(1)-출동하다 - 출발하다(1) • 만나다(1)-면회하다-뵙다 • 만들다(1)-조립하다 - 맞추다 • 바꾸다(1)-갈다-교환하다 - 대체하다 • 사다(1)-구입하다 • 살다(1)-생존하다-존재하다 • 수영하다(1)-헤엄치다 • 시작하다(1)-착수하다 • 싫어하다(1)-미워하다 • 쓰다(1) - 적다-기록하다
중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다(2)-차지하다 • 걱정하다(2)-고민하다-근심하다-염려하다 • 건너다(2) - 건너가다(2)-넘다 • 걸리다(2)-소요되다 • 구하다(2)-찾다 • 깎다(2)-덜다-빼다-줄이다 • 끊다(2)-자르다 • 나다(2)-발생하다-생겨나다-생기다-일어나다 -터지다 • 나오다(2)-나서다 • 나타나다(2)-드러나다-등장하다-보이다 - 출현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넣다(2)-담다-치넣다 • 걸리다(3)-소요되다 • 계속하다(3)-연속하다-잇다-지속하다 • 고생하다(3)-애먹다 • 고장나다(3)-망가지다 • 고치다(3) - 수리하다-수선하다 • 그만두다(3)-마치다-그치다-멈추다-끝내다-다하다-중단하다-포기하다 • 깨다(3)-부수다-파괴하다 • 꺼내다(3)-내놓다-내다 • 꾸미다(3)-가꾸다 • 남기다(3) -전하다 • 낳다(3)-생산하다
고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하다(4) - 들다 · 간섭하다(4) - 끼다(4)-끼어들다 · 가지다(4) - 차지하다(4) · 갇다(4)-돌려주다-돌려드리다 · 개발하다(4)-발명하다-창조하다-창출하다 · 견다(4) - 모으다(4) - 회수하다-거두다 · 걸치다(4)-걸다 · 공경하다(4)-받들다 · 구별하다(4)-구분하다-식별하다 · 구하다(4)-구조하다 · 금지하다(4)-규제하다 - 막다-제약하다-제한하다-통제하다-한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르다(4)-가꾸다-키우다 · 나누다(4)-분리하다 - 분열하다-가르다 · 나서다(4) - 나아가다(4)-전진하다-진출하다 · 낳다(4)-생산하다 · 내놓다(4) - 내다-꺼내다 · 넘어지다(4)-쓰러지다 · 늘다(4) - 늘어나다(4)-증가하다 · 닥쳐오다(4) - 이르다-닥치다 · 달하다(4) - 이르다(4)-미치다-도달하다 · 당하다(4)-받다-얻다 · 덜다(4)-빼다 - 줄이다-깎다
---	---

초급 단계에서 동사 유의어군은 <있다-계시다>, <먹다-드시다-잡수시다> 등 준비 관계에 따른 동사 유의어가 제시되었다. 중·고급 단계에서는 초급 단계보다 한자어 동사 유의어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는 유의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한자를 이용한 어휘 학습이 필요함을 나타낸다.²³⁾ 유의어군 중에서 <가르치다-지도하다>, <사다-구입하다>, <가지다-차지하다>, <가입하다-들다> 등을 살펴보았을 때 초·중·고급 단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동사 유의어군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6>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형용사 유의어군

초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하다(1) - 고맙다(1) · 고프다(1)-배고프다-시장하다 · 덩다(1)-무덥다-따뜻하다-뜨겁다-포근하다-후덥지근하다 · 따뜻하다(1)-뜨겁다-포근하다 - 후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다(1)-신속하다-재빠르다 · 쉽다(1)-손쉽다 · 슬프다(1)-우울하다 - 울적하다 · 심심하다(1)-지루하다 - 재미없다(1)-무료하다

23) 박재남(2002:46)에서는 한자어 유의어군 ‘행(行)’이라는 한자를 통해 어휘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유의어군 <시행하다-이행하다-행하다>와 같은 한자어 유의어군이다. 이러한 한자어 유의어군을 학습함으로써 인해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p>근하다-덥다-무덥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다(1)-상당하다-수두룩하다 - 수많다-과다하다 · 맞다(1)-옳다-바르다-올바르다-정확하다-확실하다-명확하다-엄정하다 · 멀다(1)-까마득하다 · 미안하다(1)-죄송하다 · 바쁘다(1)-급하다-위급하다 · 반갑다(1)-기쁘다(1) · 북잡하다(1)-붐비다-북적거리다 - 분주하다-번잡하다-번잡스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답다(1)-아리뭇다 - 예쁘다(1) - 어여쁘다-곱다 · 아프다(1)-편찮다 · 작다(1)-조그맣다 · 재미있다(1)-흥미있다-흥미진진하다 · 즐겁다(1)-신나다 - 흥겹다-기쁘다 · 춥다(1)-서늘하다-시원하다-선선하다-쌀쌀하다 · 크다(1)-거대하다-비대하다-커다랗다
중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다(2)-똑같다-평등하다 · 괴롭다(2)-속상하다-애타다 · 기쁘다(2)-즐겁다-신나다 - 흥겹다 · 길다(2)-기나길다 · 까맣다(2)-꺼멩다-새까맣다 · 남다(2)-충분하다-넉넉하다-풍부하다-풍요롭다 · 넓다(2)-광범위하다 · 노랗다(2)-누렇다 · 닮다(2)-비슷하다 · 뜨겁다(2)-포근하다 - 후덥지근하다-덥다-무덥다-따뜻하다 · 맞다(2)-알맞다-어울리다-상응하다-적당하다-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란하다(3)-난감하다-난처하다 · 급하다(3)-위급하다-바쁘다 · 낫다(3)-좋다-우수하다-뛰어나다-훌륭하다 · 똑같다(3) - 평등하다-같다 · 똑똑하다(3)-뛰어나다-영리하다 · 맑다(3)-깨끗하다 · 부드럽다(3)-메끄럽다 · 속상하다(3) - 애타다-괴롭다 · 손쉽다(3)-쉽다 · 시끄럽다(3)-소란하다 - 요란스럽다-떠들썩하다 · 시원하다(3)-선선하다-쌀쌀하다 - 춥다-서늘하다
고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곱다(4)-아름답다-아리뭇다-예쁘다-어여쁘다 · 귀찮다(4)-번거롭다 · 놀랍다(4) - 신기하다-경이롭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다(4)-씩다 · 섭섭하다(4)-아깝다 - 안타깝다(4)-서운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다(4)-다채롭다 · 당연하다(4)-마땅하다 · 독특하다(4)-별나다-유별하다-특별하다-특수하다-각별하다-남다르다 · 뛰어나다(4) - 훌륭하다-낫다-좋다-우수하다 · 마르다(4)-메마르다 · 무조건(4) - 무턱대고 · 바람직하다(4)-바르다 - 옳다 · 불안하다(4)-초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용없다(4)-필요없다 · 신나다(4) - 흥겹다-기쁘다-즐겁다 · 심각하다(4)-너무하다-심하다-지나치다 · 쓸쓸하다(4)-외롭다-허전하다 · 어울리다(4)-상응하다 - 적당하다(4) - 적절하다-맞다-알맞다 · 엄청나다(4)-대단하다 · 여기다(4)-치다 · 옳다(4)-바르다-올바르다-정확하다-확실하다-명확하다 - 엄정하다 - 맞다 · 정답다(4) - 다정하다
--	--

위의 유의어군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용사 유의어군은 정도 차이에 의한 유의어군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²⁴⁾ 이러한 유의어군은 <같다-똑같다>, <따뜻하다-뜨겁다>, <선선하다-쌀쌀하다-춥다>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임지아(2005:136)에서는 한국어에서 정도 차이가 나는 유의어가 많다고 한 바,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도 차이에 의한 유의어의 미묘한 의미 차이도 학습해야 할 것이다.

<표 7>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부사 유의어군

초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이(1) - 함께(1) · 다시(1) - 또 · 더(1)-더욱-더욱이-훨씬 · 또(1)-또한 - 아울러 - 그리고 · 많이(1)-넉넉히 - 충분히 · 매우(1)-몹시-무척-굉장히-극히-꽤-너무-너무너무-대단히-상당히 - 아주(1)-지극히 - 지독스레 - 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1) - 다(1)-빠짐없이 - 전부(1)-전체 - 온통 - 일체 · 빨리(1)-신속히-쏟살같이-얼른-재빨리 - 즉시-급속히-급히 · 아직(1) - 여태 · 요즈음(1)-요즘 - 최근-근래-요사이 - 요새 · 조금(1) - 좀(1) - 약간 - 다소 · 천천히(1)-차츰-슬슬-점점-차차-서서히

24) 정도 차이가 나는 유의어는 ‘길다’와 ‘기나길다’가 있다. ‘긴 정도’를 나타내는 유의어 관계로 ‘기나길다’가 ‘길다’에 비해 ‘더 길다’라는 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길다’와 정도상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 ‘기나길다’는 ‘길다’와 ‘길다’가 ‘-나’를 매개로 해서 연결된 합성어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의미상 정도 차이가 나는 유의어가 많다(임지아, 2005:136).

중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2) - 제일(2) · 같이(2) - 함께 · 곧(2)-곧바로-급방-막-바로 - 방금 · 곧장(2)-똑바로 - 바로 · 그냥(2) - 그저 · 나중에(2)-이따가 · 날마다(2) - 매일 - 나날이 · 너무(2)-극히-꽤-너무-너무너무-대단히-매우-몹시-무척-상당히-아주-지극히 - 지독스레-굉장히 · 똑바로(2) - 바로-곧장 · 마침내(2)-결국-끝내-드디어-비로소 · 먼저(2)-앞서-우선-일단 - 일찍이 · 가만히(3) - 몰래(3) - 조용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자기(3)-별안간 · 거의(3)-대부분-대개-대체로-보통 - 주로(3) · 곧(3)-급방-막 - 바로(3) - 방금(3) · 굉장히(3)-극히-꽤-너무-너무너무-대단히-매우-몹시-무척-상당히-아주-지극히 - 지독스레 · 급히(3)-빨리-신속히-쏟살같이-얼른-재빨리 - 즉시-급속히 · 꼭(3)-반드시-어김없이 - 틀림없이(3) · 다만(3) - 단지 · 대단히(3)-매우 - 몹시(3) - 무척(3)-굉장히-극히-꽤-너무-너무너무-상당히-아주-지극히 - 지독스레 · 더욱(3)-더욱이 - 훨씬 - 더 · 드디어(3) - 마침내-비로소-결국-끝내
고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끔(4) - 때로 · 각각(4)-따로 - 따로따로 · 겨우(4) - 불과(4) - 고작(4) · 결국(4)-끝내-드디어 - 비로소 · 결코(4)-전혀-절대로 - 통 · 급방(4)-막-바로 - 방금-곧-곧바로 · 끊임없이(4)-내내-죽-줄곧 - 쭉-계속-꾸준히 · 끝내(4)-드디어 - 비로소-결국 · 대부분(4)-대개(4)-대체로-보통 - 주로-거의 · 마지못해(4)-억지로(4) · 비록(4) - 아무리 · 일단(4) - 일찍이-먼저-앞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4) - 흔히(4) · 서서히(4)-천천히-차츰-슬슬 - 점점(4) 차차(4) · 스스로(4) - 저절로(4) · 아주(4)-지극히 - 지독스레-굉장히-극히-꽤-너무-너무너무-대단히-매우-몹시-무척-상당히 · 어쨌든(4) - 하여튼-아무튼 · 여간(4) - 보통 · 여전히(4)-그대로 · 오히려(4) - 차라리(4) · 온통(4) - 일체-다-모두-빠짐없이-전부 - 전체(4) · 요새(4)-요즈음-요즘 - 최근(4)-근래-요사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는 각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의어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급 단계에서는 준비 관계에 따른 유의어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 예로, <집-택, 생일-생신, 밥-진지, 먹다-드시다-잡수시다> 등이 있다.

둘째, 유의어군 중에서 <같이-함께>, <거의-대부분>, <드디어-끝내> 등의 부사 유의어군은 초·중·고급 단계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다.

셋째, 한자어 유의어군은 고급 단계로 갈수록 수가 증가하였다. 유의어군 중에서 <곤란하다-난감하다-난처하다>, <소용없다(4)-필요없다> 등은 한자어 유의어군의 예이다. 이러한 유의어군은 고급 단계로 갈수록 한자를 이용해 어휘 확장을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해(1989)에서 고유어는 비교적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반면 한자어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넷째, 고급 단계에서는 교재의 「새 단어」 부분에서 그 단원에 새로 학습하는 어휘의 뜻풀이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쉬지 않고 계속해서>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유의어군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한국어의 특징으로 존대어가 많다고는 하지만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둘째, 부사 유의어군은 초·중·고급 단계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부사 유의어군의 사용 빈도가 높다 하더라도 학습 단계에 따른 유의어의 변별 능력을 고려하여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교재에는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는 예문이 없었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 유의어 학습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의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미 배운 유의어를 복습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의어와 의미 차이도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학습한다면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경아(2007:86)에서는 <계속-내내-쭉-끊임없이-줄곧>의 유의어군을 초급 단계에서는 ‘계속’ 하나만을 학습하게 하고, 중급 단계에서 주로 시간 명사 위에 오는 ‘내내’와 ‘계속’의 의미 차이까지 설명해야 된다고 하였다. 고급 단계에서는 ‘죽(쭉)’과 확장하여 ‘끊임없이’와 사용 빈도가 낮은 ‘줄곧’까지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학습자들에게 유의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유의어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후옥분(2003)에서는 박재남(2002)과 같이 유의어군을 학습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박재남(2002:47~51)에서 각 학습 단계별로 유의어군을 제시한 것을 정리하였다.

<표 8> 단계별 유의어군(박재남, 2002:47~51)²⁵⁾

초급 단계		
명사	길(1)-거리(1) 사람(1)-분(1) 값(1)-요금(1)-금액(1)	계절(1)-철(2) 경치(1)-광경(2)-풍경(2) 생일(1)-생신(1)
동사	계시다(1)-있다(1) 끊다(1)-자르다(1) 가다(1)-나가다(1)-외출하다(1)	감사하다(1)-고맙다(1) 고치다(2)-수리하다(2) 조심하다(2)-주의하다(2)
형용사	기쁘다(1)-반갑다(1) 무섭다(1)-엄하다(2)	급하다(1)-바쁘다(1) 아름답다(1)-예쁘다(1)
부사	매우(1)-아주(1)-너무(1)-굉장히(1)	다시(1)-또(1)
초-중급단계		
명사	아이(1)-어린이(3) 걱정(3)-염려(3) 결과(2)-성과(3)	돈(1)-현금(3) 때(1)-시대(3)-시절(3) 배(1)-선박(3)
동사	놓다(1)-두다(3) 쓰다(1)-사용하다(2)-이용하다(3)	미루다(3)-연기하다(3) 준비하다(2)-대비하다(4)
형용사	귀찮다(2)-번거롭다(4) 시원하다(1)-상쾌하다(3)	복잡하다(1)-뽀미다(3) 불안하다(2)-초조하다(4)
부사	이따가(1)-나중에(4) 잠깐(1)-잠시(3)	천천히(1)-서서히(4)-슬슬(4) 항상(2)-늘(3)
초-중-고급단계		
명사	구석(2)-모퉁이(6) 마음(1)-심정(6)	물건(1)-제품(2)-상품(5) 규칙(3)-규제(5)
동사	돕다(1)-거들다(5)	걸리다(1)-소요되다(6)

	옴기다(3)-나르다(6)	급하다(1)-시급하다(6)
형용사	깨끗하다(2)-깔끔하다(6) 부끄럽다(2)-수줍다(5)	꼼꼼하다(3)-섬세하다(5) 다양하다(4)-다채롭다(5)
부사	다(1)-온통(5) 아직(1)-미처(5)	갑자기(2)-별안간(6) 계속(2)-연속(4)-마냥(6)

초급 단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의어군 <길(1)-거리(1)>, <아름답다(1)-예쁘다(1)>, <다시(1)-또(1)> 등은 초급 학습자들에게 유의어의 공통적 의미를 교육하여, 학습자들이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급·중급 단계에서는 유의어군 <돈(1)-현금(3)>, <놓다(1)-두다(3)>, <복잡하다(1)-뽀미다(3)> 등을 통해 이미 배운 유의어와 연계하여 의미 차이까지 교육해야 한다. 초·중·고급 단계에서도 유의어군 <물건(1)-제품(2)-상품(5)>, <깨끗하다(2)-깔끔하다(6)> 등을 통해 학습 단계별로 의미 차이까지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단계별 유의어군은 한국어 수업 현장에서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할지 알 수 있고, 이미 배운 유의어군을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유의어군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이것을 활용한 유의어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유의어 범주 설정이나 학습 단계별 유의어 선정과 제시 방안에 관해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한국어능력시험의 급별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

2.2.1.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매년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²⁵⁾ 한국어능력시험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평가가 실시되고

25) <표 8>에서 () 안의 숫자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급을 표시한 것이다.

26)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한다.

그 점수에 따라 1~6 등급으로 급이 결정된다. 시험 내용은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으로 크게 이분된다. 이해 영역은 듣기, 읽기가 포함되며, 표현 영역에는 어휘·문법과 쓰기가 포함되어 모두 네 영역으로 나뉘어 4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한국어능력시험의 급별 평가 기준²⁷⁾

급	평가 기준
1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800개의 기초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으로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3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비교적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 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27) 한국어능력시험 제3회~제5회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분석 결과와 세계 주요 국가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 언어 능력 평가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리한 자료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 6회부터는 사실 이 기준을 따라서 출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등급 기준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다.

1급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가 약 800개이다. 평가는 물건 사기, 음식 주문, 위치 관련 어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어휘를 평가하고 있다.

2급에서 어휘량은 약 1,500~2,000개이다. 여기서는 우체국 이용, 공공시설 이용 시 기본적인 어휘, 회의와 관련된 어휘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접하는 어휘까지 평가하고 있다.

3급에서는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다. 3급에서는 2급과 비교해서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하고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급에서는 직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 뉴스나 신문 기사 등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5급에서는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6급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학, 예술 등의 영역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분야까지 평가하고 있다.

2.2.2. 어휘·문법 영역의 문항 구성 및 문제 유형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어휘·문법은 모두 객관식으로 문항은 30개이다. 어휘·문법의 문항 구성을 초급, 중급, 고급의 전체 문항 중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가 차지하는 문항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어능력시험 제11회부터 제14회까지 살펴본다.²⁸⁾

<표 10> 어휘·문법 중 유의어·반의어·다의어의 단계별 문항 구성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유 의 어	반 의 어	다 의 어	유 의 어	반 의 어	다 의 어	유 의 어	반 의 어	다 의 어	유 의 어	반 의 어	다 의 어
초 급	3	3		3	4		3	4		3	3	
중 급	5	2	2	5	2	2	4	2	2	4	2	2
고 급	2		2	2		2	2		2	2		2

위의 표에서 보듯이 유의어와 관련된 문항은 반의어와 다의어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급에서는 유의어의 문항이 반의어와 비슷하거나 적다. 중급부터는 유의어의 문항이 급격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반의어보다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급에서는 초급에서 볼 수 없는 다의어에 대한 문항도 있다. 고급에서는 유의어와 다의어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었지만 반의어에 대한 문항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고급에서는 문법적인 요소에 의해서 서로 의미가 비슷한 문맥을 찾는 문제²⁹⁾까지 고려한다면 다의어보다는 유의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문항 구성으로 보아 유의어가 어휘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유의어와 관련된 문항을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A유형은 대화문에서 묻고 있는 유의어와 공통된 의미의 유의어를 선택하는 유형으로 초급에서 많이 나타난다. B유형은 문항에서 묻고 있는 어휘와 유의어인 것을 선택하는 유형으로 중급과 고급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서 모두 유의어의 공통된 의미만 묻는 문제가 대부분

28)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 제6회부터는 평가 기준에 따라 출제되었다. 필자는 최근 한국어능력시험의 급별 특징과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2007년과 2008년의 한국어능력시험을 임의로 선택하였다. 2007년의 상반기 시험 제11회, 하반기 시험 제12회와 2008년의 상반기 시험 제13회, 하반기 시험 제14회를 살펴보았다.

29) 한국어 교육과정평가원. 고급 제13회 문제

1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① 뛰어난들 ② 뛰어난에 따라 ③ 뛰어나겠거니와 ④ 뛰어나려니 해도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유의어에 대한 질적 능력까지 알아 보기 위해서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묻는 문항도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유의어 문항 유형

<A유형> 밑줄 친 것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제가 부탁한 편지를 보냈어요?

나: 네, 오전에 ().

- ① 부쳤어요 ② 떠났어요 ③ 받았어요 ④ 만들었어요

<B유형> 밑줄 친 것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 ① 고생하지 ② 걱정하지 ③ 결심하지 ④ 생각하지

2.2.3. 한국어능력시험의 급별 유의어군의 양상과 특징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의어군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분류는 한국어능력시험 제11회~제14회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표 11>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단계별의 유의어군 양상³⁰⁾

(*는 중복 출제된 유의어)

	초 급
제 11 회	말하다-이야기하다 사이-간-동안 *곧-딱-바로-방금 먼저-앞서-우선-일단-일찍이
제	맞은편-건너편 근처-부근-옆-주변-주위 가운데-중간-중심-중앙-한가운데-핵심 자주-누누이-여러 번
제	참-아주 주문하다-시키다

30) <표 11>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어군의 목록은 김광혜(2000)의 「비슷한말-반대말 사전」과 박재남(2002)의 유의어 목록을 참고하였다.

12회	다-모두-빠짐없이-내내-전부-전체- 온통-일체 *조금-다소-좀-약간 *언제나-늘-항상 지난해-작년	드리다-주다 받다-가지다 찾다-찾아보다-뒤지다 어제-어저께-전날
13회	*함께-같이 빨리-급히-급속히-신속히-쏟살같이- 얼른-재빨리-즉시 *제일-가장 아주-상당히-지극히	선생-스승 보내다-부치다 떠나다-떠나가다- 옮겨가다 받다-가지다 만들다-조립하다-맞추다
14회	감사하다-고맙다 나쁘다-좋지 않다-흉하다 슬프다-애석하다-서럽다 재미있다-흥미있다 *제일-가장 *언제나-늘-항상	매일-날마다-나날이 따로 -각각-따로따로 나중에-뒤에-후에-다음에-이따가 별로-그다지 *조금-다소-좀-약간
중 급		
11회	우선-먼저 *당장-곧-즉시-바로 염려하다-걱정하다-근심하다 *고생하다-애쓰다-수고하다 결심하다-결정하다 생각하다-생각다-바라다-원하다	중단하다-멈추다 남기다-두다 치우다-정리하다 늘어나다-증가하다-늘다 감소하다-줄어들다-줄다
12회	두다-놓다 사다-구매하다-구입하다 빌리다-대여하다 버리다-내던지다-내버리다 모자라다-부족하다 *고생하다-애쓰다-수고하다 만족하다-만족스럽다-달갑다 한가하다-한산하다-한가롭다	마음껏-실컷 힘껏-기운껏 *그대로-고스란히-여전히 고치다-수리하다 준비-채비-차비 정리하다-치우다 전달하다-전하다-보내다
13회	마련하다-준비하다	미루다-연기하다-지연하다

13회	예상하다-예측하다 발견하다-알아내다 선택하다-택하다-가리다-고르다 게다가-더구나 *이따금-가끔-때로 *당장-곧-즉시-바로	이동하다-옮기다-움직이다 취소-철회 분명하게-확실하게 까다롭다-어렵다-복잡하다 신중하게-조심스럽게 뜻밖에-의외로
14회	*반드시-어김없이-꼭-틀림없이-기필코 코 *언제나-늘-항상 마음대로-생각대로-멋대로 다투다-싸우다 사귀다-동무하다-친구하다-벗하다	헤어지다-이별하다 고민-걱정-근심 여유 있게-느긋하게 완벽-완전-온전 편안하다-편하다 참을성-인내심
고 급		
11회	*반드시-어김없이-꼭-틀림없이-기필코 *이따금-가끔-때로 있다-계속하다	
12회	*철저하다-철두철미하다-투철하다 소박하다-수수하다 만만하다-얕보다 *고스란히-그대로-여전히 절박하다-곤박하다	점차-점점-차츰 영원히-영영 회미하다-흐릿하다 자칫-하마터면 *애쓰다-힘쓰다-힘들이다
13회	겨우-간신히 *다소-조금-좀-약간 *애쓰다-힘쓰다-힘들이다 기원하다-유래하다 유도하다-이끌다 성실하다-착실하다	기술하다-적다-쓰다 전수하다-전해준다-물려준다 *철저하다-철두철미하다-투철하다 신중하다-조심스럽다
14회	온갖-모든 끈질기게-끝끝내	쉽쉽하다-서운하다 툼나다-째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능력시험의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서 나타나는 유의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급 단계에서는 부사 유의어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부사 유의어는 중급 단계에서도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다. 그 예로 <조금-다소-좀-약간>, <당장-곧-즉시-바로>, <언제나-늘-항상> 등이 있다.

둘째, 같은 유의어가 두 차례 연속 출제되었다. 중급 단계에서 <고생하다-애쓰다-수고하다>가 한국어능력시험 제11회, 제12회에 걸쳐 출제되었다. 고급 단계에서는 <철저하다-철두철미하다-투철하다>가 제12회, 제13회에 걸쳐 두 차례 연속 출제되었다.

셋째,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 같은 유의어군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스란히-그대로-여전히>이다.

넷째, 고급 단계에서 유의어 문항이 줄어들었다. 어휘량은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비례한다. 중급 단계에서는 어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가 알아야 할 유의어도 많다. 그러나 고급 단계에서는 중급 단계보다 어휘량은 많아졌지만 그에 따른 유의어 문항은 줄어들었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유의어군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초급 단계에서 부사 유의어군의 문항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품사별 문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품사별 유의어 문항을 출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같은 유의어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연이어 반복하여 출제되었다. 이는 학습 단계에 따른 유의어의 난이도 조절이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의어 학습과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 따른 유의어 목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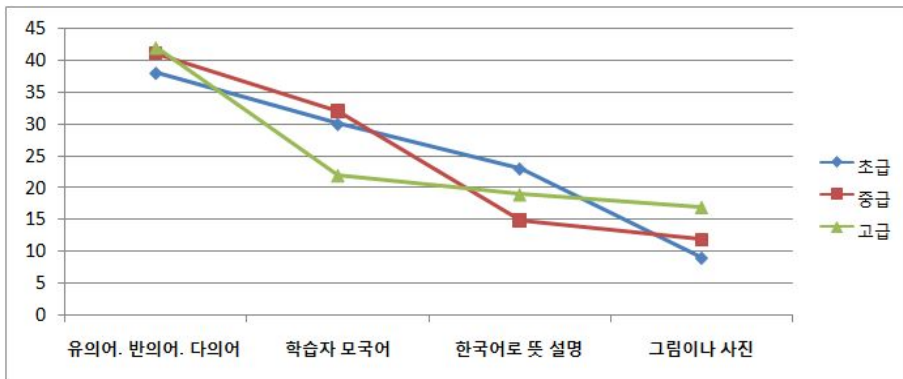
제3장 유의어 교육의 현황과 교육 방안

3.1.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3.1.1.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

한국어 학습자들의 유의어 학습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어떠한 어휘 교육 방법을 선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휘 교육 방법을 알고 있다면 학습자의 어휘 확장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나삼일(2007)³¹⁾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에 따라 어휘 교육 방법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유의어·반의어·다의어 등으로 어휘 교육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그림 4] 초·중·고급 단계의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교사의 어휘 교육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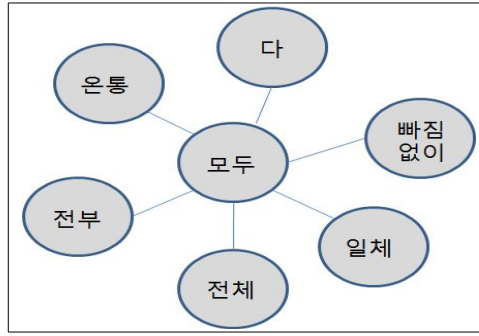
31) 나삼일(2007)에서는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과정 한국어 학습자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단계별로 기초반 45명, 초급반 51명, 중급반 52명, 그리고 고급반 25명을 설문 실시하였다. 기초반 수준은 한국어를 공부한 지 2개월 정도 되는 학습자이며, 초급은 6개월 정도, 중급은 1년 정도, 그리고 고급은 1년 6개월 정도 된 학습자들이었다.

32) 단계별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사의 어휘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삼일(2007:31~32)을 참조.

위의 [그림 4]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고급 단계의 결과이다. 나삼일(2007:32)에서 나타난 대로 고급 단계 학습자들은 한국어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어휘를 모국어로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학습자들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학습자가 22%나 되었다. 초·중·고급 단계에서 어휘를 모국어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비율은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그러나 나삼일(2008:32)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필자는 초급 단계 학습자들은 학습자의 모국어로 어휘를 설명해 주었을 때 모국어와 목표어의 일대 일 대응으로 어휘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중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들은 학습자의 모국어로 어휘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초급 단계 학습자와 다를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특징 중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가진 어휘가 많고, 학습자의 문화와 정서도 다르므로 학습자의 모국어로 어휘를 설명해 주기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의미 변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가은재(2009:49~5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유의어 오용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의어군 <벗기다-까다>의 설문조사 정답률이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어 어휘에서 ‘벗기다’라는 어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유의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유의어·반의어·다의어 중에서 유의어 학습은 반의어나 다의어보다 빠르게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의어 관계는 일대 일 대응이고, 다의어 관계는 일대 다 대응이다. 그래서 다의어는 의미가 다른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유의어는 배운 어휘 하나를 통해 의미가 비슷한 여러 개의 어휘를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사 ‘모두’와 공통된 의미로 ‘다, 전부, 전체, 일체, 빠짐없이, 온통’을 학습한다면 학습자는 배운 어휘 하나를 통해 유의어 7개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군을 학습한다면 어휘 교육 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음 아래와 같이 유의어군의 연결망을 통해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림 5] '모두'의 유의어군 어휘망

위에서 '모두'의 유의어군을 학습하면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어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학습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학습하지 않는다면 읽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쓰기에서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차숙정(2005:28)에서는 어휘 오류 중에서 학습자가 가장 많이 일으키는 오류는 유의어 오류라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특히, 한자권의 학습자들은 사전에서 쉽게 비슷한 뜻의 어휘를 찾아서 사용함으로 오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³³⁾ 최혜령(2008:61)에서도 한자권의 학습자 중에서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많은 유의어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어는 명사, 형용사, 동사에 무엇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서 학습자들이 많이 혼동을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유의어군을 서로 대치시키는 연습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재남(2002)에서도 유의어군 11쌍³⁴⁾을 추출하여 고급 단계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 52명을 대상으로 유의어 오용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의어의 정확한 쓰임을 묻는 문제에서 평균 64%라는 낮은 정답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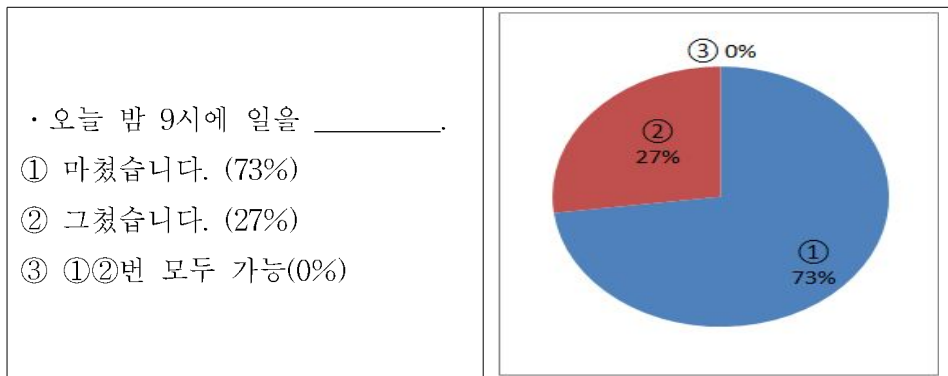
33) 차정숙(2005)에서는 중급 수준의 학습자 15명(중국 학습자 10명, 베트남 학습자 5명)의 쓰기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C는 중국인 학습자이고, V는 베트남 학습자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a. 귀여운 아이가 자기에게 귀중한 사람이다 생각했다(→소중함)-C91)
- b. 그 둘은 감만 색하고 빨간색가 닮습니다(→같습니다)-V3
- c. 그때 풍경이 그림이 같았습니다(→정치)V5
- d. 그래서 개가 보통 집을 위해서 보호합니다(→지킵니다)-V5

34) 박재남(2002)에서 추출한 유의어군 11쌍은 다음과 같다. <벗기다-까다>, <묻다-여쭙다>, <두다-놓다>, <얻다-받다-당하다>, <뛰다-달리다>, <마치다-그치다>, <기르다-키우다>, <수리하다-수선하다>, <이용하다-사용하다>, <관광하다-관람하다>, <의논하다-논의하다-토론하다>등이 있다.

나왔다. 이는 학습자들이 유의어군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 차이를 학습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가은재(2009)에서도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³⁵⁾를 대상으로 유의어의 오용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바, 유의어군 중에서 <마치다-그치다>의 오용 실태를 보면 정답률이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은재(2009)의 유의어군 오용 실태에서도 보듯이 학습자들은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의어군 오용 실태의 한 예이다.

<표 12> <마치다-그치다>의 유의어군의 오용 실태(가은재, 2009:48)



유의어군의 오용 실태에서 보았듯이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유의어군의 정확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현(2007)에서는 일본인 학습자³⁶⁾를 대상으로 실험 집단 A와 통제 집단 B로 나누어 유의어군을 활용한 수업을 실제로 적용하였다.³⁷⁾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감정형용사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의 유의어군을 교육하였다. 두 집단 모두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조 분석하여 의미 정보를 파악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험

35) 가은재(2009)에서 설문조사 한 중국인 초급 학습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학습자들이다. 설문 대상자들은 남학생 85명, 여학생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6) 김정현(2007:91~98)에서 학습자의 집단 양상은 다음과 같다.

집 단	급수	국가	연령	성별
A	초급2	일본	20세(평균)	남1, 여5
B	초급2	일본	21세(평균)	여4

카톨릭대학교에서 수업은 하루 5시간, 주 5일의 3주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1교시에는 복습과 어휘를 가르치는 수업에서 매일 20분씩 3주간 유의어 수업을 하였다.

37) 반갑순(2001)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A, 통제집단 B로 나누어 유의어군을 활용한 수업을 적용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반갑순(2001:21~60)을 참조.

집단 A에서만 ‘아름답다’, ‘예쁘다’의 의미 차이를 공기 관계를 활용하여 표로 만들어 제시했다. 그리고 문맥 안에서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의 의미 차이와 그 쓰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그 결과 어휘를 제시하고 문장을 만드는 단순한 어휘의 의미 평가 문제에서 두 집단 모두 오류가 없었다. 그러나 ‘아름답다’는 어휘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평가에서는 실험 집단 A와 통제 집단 B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실험 집단 A와 통제 집단 B가 ‘아름답다’를 사용해 만든 문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실험 집단 A와 통제 집단 B의 생산 문장의 예(김정현, 2007:97~98)

실험 집단 A	통제 집단 B
1. 친구와 함께 간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 2. 서울의 야경은 아름답다. (○) 3. 그녀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 4. 설악산의 경치가 아름답다. (○) 5. 꽃이 정말 아름답다. (○) 6. 올해 단풍이 아름답다. (○) 7.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이다. (○)	1. 그 아이는 아름답게 생겼어요. (×) 2. 서울의 야경은 아름답다. (○) 3. 친구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아름답게 자르고 싶어요. (×) 4.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 5. 그녀는 화가 나서 아름답지 않다. (×) 6. 그 사람은 피부가 아름답다. (×) 7. 케이크가 정말 아름다워요. (×)

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실험 집단 A에서는 정답률이 100%이고, 유의어 교육을 하지 않은 통제 집단 B에서는 정답률이 60%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 집단 A의 경우 유의어에 대한 질문이 줄고 어휘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에 통제 집단 B는 유의어에 대한 질문이 줄지 않고, 학습자들의 어휘력 면에서도 크게 부족함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에서 볼 때 유의어 교육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유의어 교육의 현황

유의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학습자보다 교사가 한국어 현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의어 교육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유의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유의어 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³⁸⁾

먼저 각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사 60명³⁹⁾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조사는 직접 조사로 설문지⁴⁰⁾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09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28일간이다. 설문지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의어 현황을 조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된 유의어 교육 현황은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재 유의어 교육 현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4> 설문조사 내용

1. 유의어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 유의어 지도가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3. 실제 한국어 수업 시간에 유의어를 교육하는가.
4. 어휘를 지도할 때 유의어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5. 수업 시간에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질문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6. 유의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7. 유의어 지도는 어느 학습단계부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38) 김정현(2007)에서도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유의어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김정현(2007)에서는 초급 단계 한국어 교사 27명만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시 유의어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유의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급 단계의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유의어 지도가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유의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유의어 지도는 어느 학습단계부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학습단계별 유의어 목록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하였다. 그러므로 필자가 설문조사 한 유의어 교육 현황은 김정현(2007)에서의 실시한 설문조사와 다름을 밝힌다.

39)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사는 경희대학교 교사 20명, 조선대학교 16명, 전남대학교 13명, 전북대학교 4명, 순천대학교 4명, 연세대학교 2명, 강남대학교 1명으로 총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단계는 초급 32명, 중급 36명, 고급 19명으로 한 명의 교사가 2개 이상의 반을 맡고 있는 교사는 모두 21명이다.

40) 설문지는 부록 참조.

8. 학습 단계에 따른 유의어 목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9. 유의어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0.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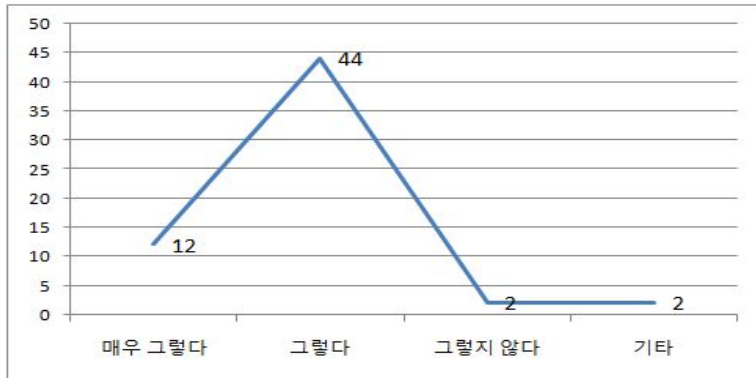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유의어 교육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설문조사 결과

문항	보기	합계(%)
1. 유의어 지도의 필요성	①매우 그렇다	16(27.2)
	②그렇다	43(73.1)
	③그렇지 않다	0(0)
	④기타	1(1.7)
2. 어휘 확장의 유용성	①매우 그렇다	12(20.4)
	②그렇다	44(74.8)
	③그렇지 않다	2(3.4)
	④기타	2(3.4)
3. 유의어 교육의 실시 여부	①그렇다	51(86.7)
	②그렇지 않다	1(1.7)
	③기타	8(13.6)
4. 유의어 질의를 받은 경험 여부	①그렇다	55(93.5)
	②그렇지 않다	4(6.8)
	③기타	1(1.7)
5. 유의어 질의에 대한 응답 여부	①문맥을 통해 설명한다	57(96.9)
	②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시간에 알려 준다	0(0)
	③그냥 넘어간다	0(0)
	④기타	3(5.1)
6. 유의어의 설명 방법	①비슷하다고 설명(의미의 공통점)	17(28.9)
	②의미 차이를 설명	31(52.7)
	③기타	21(20.4)
7. 학습 단계에 따른 적절성	①초급	16(27.2)
	②중급	43(73.1)
	③고급	1(1.7)
8. 유의어 목록의 필요성	①매우 그렇다	9(15.3)
	②그렇다	46(78.2)
	③그렇지 않다	4(6.8)
	④기타	1(1.7)
9. 특별한 유의어 교수법	①매우 그렇다	5(6.8)

필요성의 유무	②그렇다	44(71.4)
	③그렇지 않다	9(20.4)
	④기타	2(3.4)

어휘 지도 시 유의어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60명 중 59명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6] 유의어 지도의 어휘 확장 유용성

유의어 지도가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60명 중 95.2%에 해당하는 56명이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위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어 학습 중 유의어 지도는 많은 한국어 현장에서 어휘 확장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의어를 통해 어휘 확장을 시도하는 것은 한 어휘에 관해 관련된 단어를 중심으로 연계적인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무조건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외우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게 되므로 유의어 지도가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며, 유의어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의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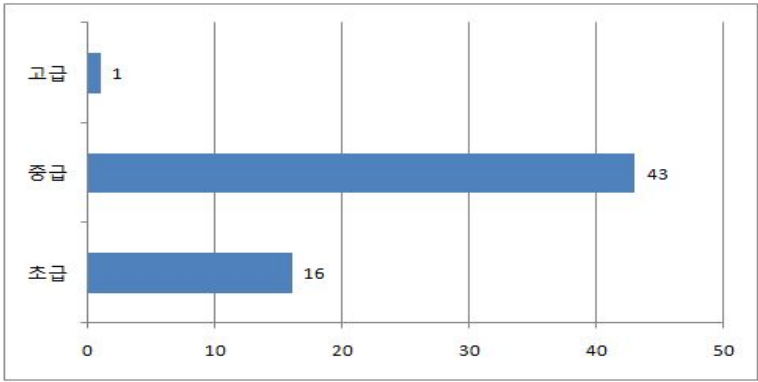
실제 한국어 수업 시간에 유의어를 교육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총 60명 중 86.7%에 해당하는 51명만 유의어를 교육한다고 대답하였다. 60명 중 13.6%에 해당하는 8명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거나 교과서에 유의어가 나올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일 때 유의어를 교육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외 1명은 유의어 교육보다 반의어 교육이 빈번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유의어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1.7%에

해당하는 1명에 불과하다.

어휘 지도 시 유의어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55명(93.5%)이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위의 조사 결과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유의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정현(2009:18)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는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유의어를 제시해 주고 유의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수업 시간에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질문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대답은 57명(96.9%)이 문맥을 통해 설명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외는 학생이 이미 배운 유의어면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시간에 알려주거나 예문을 통해 설명한다고 대답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교사는 수업 시간에 유의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바로 유의어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의어를 비슷한 말 또는 의미의 공통점만 설명한 교사는 17명(28.9%)이었다.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설명해 준 교사는 31명(52.7%)에 해당된다. 12명(20.4%)에 해당하는 교사는 유의어의 공통점과 의미 차이를 예문을 통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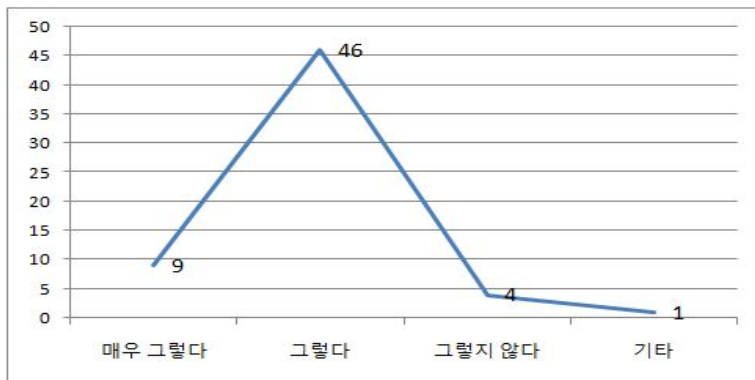


[그림 7] 학습 단계에 따른 적절성

유의어 지도는 어느 학습 단계부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급 단계부터 유의어를 지도해야 한다는 교사는 16명(27.2%)이었다. 유의어 지도는 초급 단계부터가 적절하다고 한 교사들은 초급 단계를 통해 중·고급 단계에서 반복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중·고급 단계부터는 발생 가능한 유의어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

유의어의 수준에 따라 초급 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도 있으므로 초급 단계에서 유의어 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중급 단계부터 유의어를 지도해야 한다는 교사는 43명(73.1%)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초급 단계에서 유의어 의미 설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더라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학습자 자신만의 어휘장과 어휘 학습 방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유의어를 가르쳐야 혼란을 주지 않고, 학습자도 비교적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초급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어휘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중급 단계부터 어휘 확장 및 유의어 사용의 미묘한 차이를 학습한다면 정확한 한국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고급 단계부터 유의어를 지도해야 한다는 교사는 1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중급 단계 학생들은 맥락에서 대략의 의미 파악이 가능하지만 100% 한국어로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고급 단계부터 유의어를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어 현장에서 대부분 교사들은 학습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어에 대한 질문을 받아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유의어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그림 8] 단계별 유의어 목록의 필요성

학습 단계에 따른 유의어 목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교사는 55명에 해당하는 93.5%였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교사들은 단계별로 유의어 목록이 있다면 유의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어휘 교육에서 유의어 교육은 개별 어휘에 머무르지 않고, 어휘장 내지 어휘망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유의어 목

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에는 4명(6.8%)에 해당된다. 유의어는 학습자의 성향이나 관심도에 따라 다르므로 유의어와 어울리는 서술어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에서 한국어 교사들의 의견들을 분석해 보면 학습 단계에 따른 유의어 목록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의어를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교육하지 않고 한국어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었다. 학습 단계별 유의어 목록이 없다면 교사에 따라 유의어의 교육 내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계별 유의어 목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9] 특별한 유의어 교수법 필요성의 유무

교사들은 유의어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매우 그렇다’는 5명, ‘그렇다’는 44명으로 모두 83.3%가 긍정적이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유의어 교육을 할 때 유의어의 공통점을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질적인 차이 즉, 의미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워서 언어에 대한 직관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했다. 유의어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지 않다’는 9명으로 15.3%에 해당한다. 유의어 교육은 단어 확장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기존 언어교수법의 틀 안에서 함께 가르쳐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한국어 교사들이 유의어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유의어 지도 방안의 특별한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본다.

유의어 지도 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의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미세한 차이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따른 유의어 목

록을 분류하여 이것을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문장의 제시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의어 교육은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고 유의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한국어 교사들이 유의어 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계별 유의어 목록도 없었다. 이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유의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¹⁾

3.2. 유의어 교육 방안

3.2.1. 의미 차이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에 있어서 정확성은 중요하다. 이는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유의어의 의미 차이까지 학습해야 됨을 더욱 강조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유의어의 공통된 의미뿐만 아니라 의미 차이도 가르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보다는 국어학계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어 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유의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현용(200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유의어의 의미 차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유의어 사용에 대한 오류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의어 의미 차이에 대한 교사용 자료나 학습자를 위한 자습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기준⁴²⁾이

41) 문금현(2005)에서는 국내 한국어 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는데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의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초 자료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유의어 사전』을 펴고 있다.

42)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방법으로 반의 검증법(opposite test method), 나열 검증법(arrange test method), 문법 체계 검증법(grammar system test method), 치환 검증법(substitution

필요하다. 실제로 국어학에서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방법으로 ‘치환 검증법(substitution test method)’이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다. 유현경·강현화(2001), 박재남(2002), 최경아(2007), 김정현(2007), 이연경(2009), 김은진(2009), 최화정(2010) 등의 연구에서도 ‘치환 검증법’을 사용하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밝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치환 검증법’에 대한 예로 <부끄럽다-창피하다-수줍다>의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정현, 2007:72~73).

<표 16> ‘부끄럽다’의 유의어군 의미 차이(김정현, 2007:76)

(*는 비문의 표시)

	부끄럽다	창피하다	수줍다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떠한 상황이나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말이나 행동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어려워한다. 예) 남자 앞에서는 (부끄러워서/창피해서/수줍어서) 고개도 못 든다.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을 대하기가 자랑스럽지 못하여 떳떳하게 얼굴을 들기 어려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면을 깎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하여 부끄럽다. 예) 아랫사람에게 *부끄러움/창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숫기가 없어 활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태도가 있다.

test method), 성분 분석법(componential analysis method) 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임지룡(1992)에서는 Ullmann(1962)에서 사용한 반의어 검증법, 치환 검증법, 나열 검증법을 사용하여 유의어 간의 의미를 변별하였다. 유의어 간의 의미 변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반의 검증법(opposite test method)은 유의어와 대립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을 통해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유의어 <맑다-깨끗하다>에서는 ‘물, 공기, 시야’ 등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들과 반대어는 <흐리다-더럽다>로 대비시키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다.

치환 검증법(substitution test method)은 문맥 속에서 유의어를 치환해 봄으로써 문맥의 진리치가 바뀌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나열 검증법(arrange test method)은 <실개천-개울- 시내-내-하천-강-대하>와 같이 정도성이 있는 단어들을 나열함으로써 의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성분 분석법(componential analysis method)은 어휘의 의미 원소(semantic prime)로 분해해 내는 방법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임지룡, 1992:210).

(1) 틈-겨를

a. 놀 (틈/겨를)이 없다. b. 문 (틈/*겨를)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위의 (1)에서 ‘틈’과 ‘겨를’은 공통적 성분으로 [+사이]를 지니지만 ‘틈’은 [+공감][+시간], ‘겨를’은 [+시간]이라는 성분을 가지므로 유의어 간의 변별이 된다.

	예) 나는 <u>부끄러움</u> / <u>* 창피함/수줍음</u> 이 많다.	줍음을 당했다.	예) 은주는 <u>* 부끄럽</u> <u>고</u> / <u>* 창피하고</u> / <u>수줍</u> <u>고</u> 말이 없는 아이였 으나 증명했다.
--	--	----------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의어군 <부끄럽다-창피하다-수줍다>는 공통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문맥에서 유의어군을 대치해 봄으로써 의미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치환 검증법’에 의한 의미 차이 설명 방법은 ‘반의 검증법’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반의 검증법’은 모든 단어들이 명확한 반의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의 검증법’으로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지룡(1992:141)에서 무한수의 문맥에서 유의어의 차이점을 모두 아는 것은 ‘치환 검증법’으로도 불가능함으로 유의어를 설명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아름(2009)에서는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여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근처-옆>의 유의어군의 공통적 의미는 ‘인접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처-옆>의 의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근처-옆>의 유의어군 성분 분석(박아름, 2009:52)

	구체	공간	인접성	상하	좌우
근처	+	○	○	○	○
옆	+	○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처’는 기준점으로부터 가까운 곳을 뜻하지만, ‘옆’은 기준점의 좌우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을 나타낸다. 즉, ‘근처’는 상하좌우의 개념이 모두 들어있지만, ‘옆’에는 좌우의 개념만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아름(2009)에서는 ‘근처’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을 뜻하는 한자어로 상하좌우를 모두 뜻하고 ‘옆’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면, 또는 그 주변을 뜻하는 고유어로 유의어군을 정리하고 있다.

강현화(2001)에서는 ‘슬프다’의 유의어군과 ‘기쁘다’의 유의어군을 정도 차이 비교선(Clines)⁴³⁾를 통해 의미 차이를 나타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표 18> ‘슬프다’군과 ‘기쁘다’군의 정도 차이 비교(강현화, 2001:62)

(약함)-----		-----		-----		-----		-----	>(강함)
		슬프다		애석하다		애통하다		비통하다	
(약함)-----		-----		-----		-----		-----	>(강함)
		만족하다, 흐뭇하다		즐겁다, 재미있다		행복하다		신나다, 흥겹다	
								벅차다, 감격하다	

위의 <표 18>에서는 ‘슬프다’의 유의어군과 ‘기쁘다’의 유의어군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도 차이를 통해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다. 강현화(2005:75)에서도 시간적인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은 그 의미 풀이만으로는 빈도의 정도를 쉽게 구별해 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정도성의 차이를 통해서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에서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는 ‘성분 분석법’과 ‘정도 차이 비교’ 등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효과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치환 검증법’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43) 정도 차이 비교선은 대개 경사선에 의해서 나타내는데, 이 경사선에 배열된 단어들은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이 경사선에서의 특정 지점들을 보여 주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단어와 관계하여 가장 적절한 자리에 넣어져야 할 단어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언제나, 자주, 때때로 이따금’을 경사선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강현화, 2005:91).

- (1) ----- (이따금)
 ----- (때때로)
 ----- (자주)
 ----- (언제나)

3.2.2.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

3.2.2.1.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은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문장에서 함께 결합하는 어휘가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 자주 결합하는 어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용이하다. 특히, 유의어와 결합하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봉미경, 2005:106). 또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발화하거나 작문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로 해당 어휘와 공기하는 표현과의 결합 관계인데, 이는 모국어의 간섭⁴⁴⁾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고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연어 정보의 유용성을 김진혜(1999), 한송화(2001), 문금현(2002) 등에서 강조한 바 있다.⁴⁵⁾

연어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을 하기 위해 연어가 중요하다고 할 근거는 한송화(2001:101~102)에서 볼 수 있다. 어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어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노랗다’와 ‘누렇다’의 의미적 차이는 함께 나타나는 연어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노랗다’는 ‘노란 국화, 노란 옷, 노랗게 물들었다’ 등과 연어 관계를 갖는바, 주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색감을 나타내는 반면, ‘누렇다’는 ‘누린 이빨, 누렇게 바래다’ 등과 같이 부정적 색감을 나타내는 어휘 결합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어를 통해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송화·강현화(2002)에서도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을 위해 연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어 정보를 교실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지혜(2006)에서도 연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의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44)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분류는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로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이정희, 2002:185). 이 때 모국어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전이(transfer)로,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간섭(interference)으로 본다. Frise(1945), 남성우 외(2006)에서는 제 2언어의 구조적인 어려움보다는 제 1언어 사용으로 인해 이미 뿌리내려진 습관이 제 2언어 습득에 지속적으로 간섭하여 방해한다고 하여 제 2언어 학습에서의 오류는 제 1언어의 간섭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5) 연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상규(2002), 한영균(2002), 한송화·강현화(2002), 이동혁(2004), 이지혜(2006) 등을 참조.

사용하는 학습자 역시 정확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의어 교육 시 연어 정보를 이용하면 유의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목적’과 ‘목표’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때 ‘목적’은 ‘달성하다’라는 동사와 자주 결합하고, ‘목표’는 ‘달성하다’ 동사 외에 ‘세우다’라는 동사와도 결합하는 것으로 이들 명사의 연어 정보인 동사를 함께 제시한다면 의미 전달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지혜(2006)에서는 29개⁴⁶⁾의 심리형용사 유의어군에 속한 개별 심리형용사의 의미를 ‘체언+용언’의 구성과 ‘용언의 관형형+체언’의 구성을 토대로 추출한 연어를 통해 유의어군의 변별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 정보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연어는 학자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⁴⁷⁾ 연어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개념과 범위,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연어는 ‘결합 제약 검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결합 제약 검증’에 대해 어휘들이 결합하여 문장을 이룰 때 주어진 위치에서 공기할 수 있는 어휘의 제약을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과 연어(Collocation)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봉미경, 2005:105~106). 선택 제약은 결합하는 어휘의 의미자질을 나타낸다. 연어는 그 제약을 통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휘 항목들이 제한적으로 연결되어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공기 관계이다. 이러한 어휘의 결합에 따라 유의어를 변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4) a. 그는 빠르게/재빠르게 짐을 차에 실었다.

b. 빠르게/*재빠르게 달리는 신간선 열차 창밖으로 후지산이 보인다.

46) 이지혜(2006)에서 29개의 심리형용사의 유의어군은 다음과 같다. 가증스럽다군, 가엽다군, 감사하다군, 갑갑하다군, 걱정스럽다군, 경이롭다군, 고단하다군, 고통스럽다군, 귀엽다군, 귀찮다군, 기막히다군, 기쁘다군, 낯설다군, 대견스럽다군, 두렵다군, 따분하다군, 멋쩍다군, 못마땅하다군, 미덥다군, 미심쩍다군, 분통하다군, 불쾌하다군, 비통하다군, 서운하다군, 쓸쓸하다군, 우습다군, 우울하다군, 지겹다군, 흐뭇하다군 등이 있다.

47) 연어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진혜(2000)에서의 협의의 연어는 즉,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들 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로 보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휘 항목들의 공기 관계의 빈도가 높을 때 연어 구성으로, 어휘가 실제로 쓰여질 때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현화(1997)에서는 ‘연어는 말뭉치에서 어휘 항목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남윤진(2000)에서는 ‘연어를 일정한 출현 범위 내에서 둘 이상의 어휘가 비교적 짧은 거리를 두고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c. 방 안에는 옷가지들이 산만하게/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 d. 아이가 정말 주의가 산만했다/*어수선했다.

위 (4a~4d)⁴⁸⁾에서 보듯이 ‘재빠르다’는 그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 유정명사만을 요구하는 반면, ‘빠르다’는 유정명사, 무정명사의 속성을 모두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빠르다, 재빠르다’와 결합하는 명사와 공기 제약의 차이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유의어군 ‘산만하다, 어수선하다’는 ‘주의’와 공기하여 연어 구성을 이룰 수 있느냐에 따라 변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취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선택 제약과 연어 제약을 구별하지 않고 광의의 어휘적 ‘공기 관계’로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연어 정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 역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어 교육 시 연어 정보를 이용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2.2.2.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변별 분석

유의어군을 이루는 어휘들은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 변별은 연어 관계를 이용해서도 의미 변별을 할 수 있다.

무엇인가 흠족하지 못하여 느끼게 되는 감정인 ‘서운하다’의 유의어는 ‘서운하다’와 ‘섭섭하다’가 있다. ‘서운하다’군의 의미 차이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지혜(2006:92~93)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5) a. 경숙의 말이 서운하다는/섭섭하다는 듯이 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나오셨습니다.
- b. 아, 납편이 섭섭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c.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아쉬운/*서운한/*섭섭한 작별을 고했다.

48) (4a)~(4d)의 문장은 봉미경(2005:106)에서 가져온 문장이다.

위의 (5a)에서 ‘서운하다’와 ‘섭섭하다’는 ‘말’과 공통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5b)에서 ‘섭섭하다’는 ‘남편’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섭섭하다’는 (5b)처럼 [+인간]의 의미 성분을 지니는 명사 ‘남편’과 결합한다. ‘섭섭하다’는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며, 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일방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서운하다’에 비해 그 감정의 크기가 크다고 이지혜(2006)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반면, (5c)에서 ‘아쉽다’는 ‘작별’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c)에서 ‘아쉽다’의 자리에 ‘서운하다’나 ‘섭섭하다’가 놓일 경우에는 문장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서운하다’의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이다.

<표 19> ‘서운하다’의 유의어군 연어 정보(이지혜, 2006:92)

심리 형용사 유의어군	(체언+용언 구성)	(용언의 관형형+체언) 구성	부분 결합구성	공통결합구 성
서운하다		감정(4), 마음(6), 말(3), 생각(5), 일(5), 표정(4)	감정, 말, 말씀	마음
섭섭하다	남편(2), 마음(2), 말(6), 말씀(2)	감정(3), 느낌(3), 마음(15), 일(8), 표정(9)		
아쉽다	~는 자세(3)	대목(2), 마음(4), 부분(2), 생각(5), 소리(4), 얼굴(3), 일(10), 작별(7), 표정(6)		

이와 같이 ‘서운하다’군의 연어 정보를 보면 체언+용언, 용언의 관형형+체언의 구성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운하다’와 ‘섭섭하다’는 ‘감정, 말, 말씀’과 공통적으로 결합하고, ‘섭섭하다’는 ‘남편’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아쉽다’는 ‘작별’과 자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어 정보를 격자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49) 강현화(2005:615)에서는 공기 관계에 따라 유의어군의 격자들을 활용하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로 하여금 격자들이 모두 메워지지 않는 것들을 활용하여 소그룹 토의를 통해 각 단어의 의미 자질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표 20> ‘서운하다군’의 격자표

	서운하다	쉽습하다	아쉽다
~마음	○	○	○
~말	○	○	
~감정	○	○	
~작별			○
남편(사람) ~		○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를 격자표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에게 교수한다면 쉽게 ‘서운하다’군의 의미 변별을 할 수 있다. ‘서운하다’군의 의미 변별을 하기 위해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를 격자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의어군과 자주 결합하는 어휘를 연습한다면 유의어의 오류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는 격자표를 이용해 교수한다면 효과적인 유의어 수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아름답다-예쁘다>는 유의어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⁵⁰⁾

<표 21> <아름답다-예쁘다>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

아름답다			
명사+아름답다	부사+아름답다	아름답다+명사	아름답다+동사
꽃이 ~, 노래가 ~, 모습이 ~, 목소리 가 ~, 사람이 ~, 얼굴이 ~, 마음씨 가 ~, 사랑이 ~, 삶이 ~, 우정이 ~, 이야기가 ~, 일이 ~	가장 ~, 너무 ~, 정말 ~, 참 ~, 펍 ~	(아름다운) 것, 곳, 꽃, 노래, 모습, 부 분, 사람, 산, 일, 마음씨, 삶, 우정, 이야기, 정신	(아름답게) 보내다, 살다
예쁘다			

50)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는 김하수 외(2007)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명사+예쁘다	부사+예쁘다	예쁘다+명사	예쁘다+동사
꽃이 ~, 눈이 ~, 다리가 ~, 목소리 가 ~, 얼굴이 ~, 여자가 ~, 옷이 ~	가장 ~, 굉장히 ~, 너무 ~, 더 ~, 되게 ~, 무척 ~, 아주 ~, 정말 ~, 제법 ~, 제일 ~, 참 ~	(예쁜) 그릇, 꽃, 색, 아가씨, 아이, 얼굴, 여자, 옷, 옷 음, 이름, 인형	(예쁘게) 그리다, 꾸미다, 만들다, 보 이다, 생기다, 웃다, 자르다, 피다, 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다. ‘아름답다’는 희생정신과 우정이 결합(아름다운 희생정신, 아름다운 우정)하면 자연스럽다. 그런데 ‘예쁘다’는 희생정신과 우정이 결합(* 예쁜 희생정신, * 예쁜 우정)하면 어색하다는 것을 연어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⁵¹⁾ 이러한 유의어의 연어 정보를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어휘 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연어 관계는 고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문법적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유의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연어 관계 중에서도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가 문제다. 문금현(2004)에서는 말뭉치를 통해 해당 단어와 자주 결합하고 고정적으로 결합하는 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실제적인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금현(2004)에서는 유의어군의 결합 구성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비교 단어가 공통적으로 모두 결합 가능한 구성은 ‘전 항목 공통 결합 구성’이라 하였다. 비교 단어가 셋 이상이고 두 단어가 공통되는 경우는 ‘부분 공통 결합 구성’이라 하였다. 각 단어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변별 결합 구성’이라 하였다. 이러한 결합 구성 차이에 따른 동사 유의어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51) 김정현(2007)에서는 ‘아름답다’와 ‘예쁘다’의 유의어를 의미 변별하기 위해 의미 자질로 그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름답다’의 속성을 의미 자질로 나타내면 [+시각], [+청각], [-촉각], [-아이], [+예술적], [+정신미], [+추상적]이고, ‘예쁘다’의 속성을 의미 자질로 나타내면 [+시각], [+청각], [-촉각], [+아이], [-예술적], [-추상적], [+외형미], [+여성미]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이므로 ‘예쁘다’보다 ‘아름답다’를 사용하는 것 옳다고 보고 있다. 희생정신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미의식이므로 ‘예쁘다’보다 ‘아름답다’가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다.

<표 22> 결합 구성 차이에 따른 동사 유의어(문금현, 2004:83)

번호	동사류	출현 횟수	변별 의미	변별 결합 구성	부분 공통 결합 구성	전 항목 공통 결합 구성
1	누리다	281	물질적		부귀영화/호강/호사 /인기/특권을	자유를~/ 행복을~
	만끽하다	31	감정적		기분을~/쾌락을~	
2	멈추다	2217	동작 관련 어휘와 결합	걸음을~/ 동작을~/ 잠시~		말(하기)을 ~/도중에 ~
	그만두다	477	지속적인 상황이나 의도적인 행위와 결합	회사(직장) 을~/일을 ~		
3	싸우다	1016		00을 위해~/맞 서~/끝까 지~/00을 상대로~		00와~/서 로~/목숨 을 걸고~
	다투다	238	특정 결합구성을 선호함	앞/생사/촌 각을~/왕 위를 두고(놓고) ~		

위의 결합 구성의 차이에 따른 동사 유의어군을 학습한다면 유의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금현(200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의어 교육은 사용 빈도수가 높은 유의어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습 단계별로 유의어군의 범주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은 연어 정보와 연어 정보의 격차들을 활용하면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어 관계를 이루는 것은 특정 명사나 부사, 형용사, 동사와 결합으로 인해 연어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들에게 유의어군의 연어 정보를 제시하고, 연어 관계 격자들을 통해 유의어군 의미 차이를 연습 시킨다면 학습자들의 유의어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3. 학습 단계별 유의어 수업 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의어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한국어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P-P-P 방법을 따르고 있다. P-P-P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제시 단계(Presentation), 연습 단계(Practice), 표현 단계(Production)의 3단계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진다.⁵²⁾ 제시 단계에서는 교사가 실물이나 그림 등의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그날 학습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연습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그날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표현 단계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문형이나 어휘를 학습자 주변의 이야기에 적용시켜 실제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화를 한다.

언어 수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P-P-P 수업 방식에서는 교사가 먼저 배울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그 내용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연습한 것을 기초로 생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과제 중심 교육이 성행하면서 기존의 P-P-P 수업 모형을 이용한 교육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요즘은 마지막 P에 해당하는 단계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⁵³⁾

강현화(2005)에서는 ‘제시-연습-생산(P-P-P)’의 방식은 교사 중심 교육이었으나, 최근 어휘 접근법에서는 학습자 주도의 ‘관찰-과정-실험’ 패러다임⁵⁴⁾이라고 제안하

52) Byrne(1986)의 PPP 수업모형은 황경양(2009:21~23), 성명희(2003:97) 등에서도 볼 수 있다.

53) 김정숙(2005)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과제(task)란 ‘의미 중심으로 하여 의사소통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이해, 처리, 생산, 대응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를 이용해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과제는 언어를 실제 사용과 관련해 연습하는 사용(use)단계, 혹은 의사소통 단계에서 수행되는데, 여기서는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에서 설명되고 연습한 내용을 실제 언어 사용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형태가 아닌 의미에 집중하여 연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제 수행은 학습자로 하여금 유의미적인 활동을 교실 안에서 하게 함으로써 교실에서의 언어 학습 활동을 실제 생활에서의 언어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54) ‘관찰’은 새로운 언어를 만나고 인지함을 말하며, ‘가정’은 유사성과 차이점에 기반하여 입력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은 학습자의 중간 문법에 기반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입력(input)은 학습자의 현재의 가정을 확증해 주거나 반대하기도 한다고 보았다(강현화, 2005:98).

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교사 중심 교육을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현화(2005:100~102)에서는 어휘 교수의 순서를 5단계로 제시하였다. 도입(학습 목표, 인식, 흥미 유발)→제시·설명(어휘 제시, 용법 설명)→연습 및 어휘 확장(구조적 연습, 유기적 연습)→사용(역할 놀이)→마무리 단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현화(2005)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을 참고하여 도입→제시·설명→연습·활용→마무리 단계로 수업 구성하여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의어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각 학습 단계별 본문을 만들고, 이 본문을 바탕으로 유의어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급 단계에서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어휘 확장을 위한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의어의 공통적인 의미를 부각시켜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급 단계이상에서는 유의어의 공통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의미 차이까지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환 검증법 및 언어 관계를 이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3.1. 초급 수업 모형

1) 도입 단계

초급 단계에서는 유의어 교육을 하기 위해 초급 학습자들에게 맞는 본문을 만들고, 이 본문을 바탕으로 유의어의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본문 상황에 맞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 주고, 새로 학습해야 할 유의어를 노출시켜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그날 학습해야 할 유의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본문 내용

수미: 마틴 씨, 어디에 가요?

마틴: 학교에 가요.

수미: 걸어서 가요?

마틴: 네, 걸어서 가요.

수미: 학교 앞에 새로운 도로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빨리 가요.

마틴: 그래요? 고마워요.

수미: 마틴 씨, 요새 무엇을 해요?

마틴: 요즘에는 한국어를 배워요. 주말에는 친구와 같이 산에 가요.

수미: 그래요? 요즘 산이 아름다워요?

마틴: 네, 정말 예뻐요.

수미 씨, 다음에 함께 가요.

수미: 좋아요.

교사는 본문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들려주고, 본문에 나오는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유의어군을 사용한 대답을 유도한다.

2) 제시 · 설명 단계

본문에 나온 유의어군 <길-거리>, <요즘-요새>, <배우다-공부하다>, <같이-함께>, <너무-아주> 등을 제시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유의어군의 공통적 의미를 설명한다. 예문(6a)와 (6b), (7a)와 (7b), (8a)와 (8b), (9a)와(9b), (10a)와 (10b), (11a)와 (11b)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문을 통해 설명한다.

(6) a. 길을 걸어요.

b. 거리를 걸어요.

(7) a. 요즘 바빴다.

b. 요새 바빴다.

(8) a. 외국어를 배워요.

b. 외국어를 공부해요.

(9) a. 친구와 같이 도서관에 가요.

b.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가요.

(10) a. 그 일이 너무 많아요.

- b. 그 일이 아주 많아요.
- (11) a. 꽃이 아름답다.
- b. 꽃이 예쁘다.

본문에 나온 유의어군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유의어군의 공통점

	길	거리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동물 또는 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p>예) 큰 <u>길/거리</u> 한적한 <u>길/거리</u> <u>길/거리</u> <u>걷다</u>. <u>길/거리</u> <u>지나다</u>.</p>	
	요즘	요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까지의 매우 짧은 동안. <p>예) <u>요즘/요새</u> 어떻게 지내니?</p>	
	배우다	공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학문, 지식, 기술을 익히고 배움. <p>예) 학생들이 영어를 <u>배우다/공부하다</u>. 삼 년 동안 골속에서 칼과 활쏘기를 <u>공부하였다/배웠다</u>.</p>	
	같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 <p>예) 모두 <u>함께/같이</u> 갑시다. 친구와 <u>함께/같이</u> 학교에 가요.</p>	
	너무	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지나침. <p>예) <u>너무/아주</u> 많다. <u>너무/아주</u> 좋다. <u>너무/아주</u> 어렵다.</p>	
	아름답다	예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는 대상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 좋음. <p>예) 꽃이 <u>아름답다/예쁘다</u>. 단풍 색깔이 <u>아름답다/예쁘다</u>. 얼굴이 <u>아름답다/예쁘다</u>.</p>	

초급 단계에서는 어휘 확장을 위한 유의어 교육을 한다. 유의어는 유의어군의 공

통적인 의미를 문장을 통해 설명한다. 실물을 통한 유의어군 제시가 필요한 경우, 그림 카드나 단어 카드 등을 이용한다. 또한 유의어군의 의미와 용법을 제시하고 함께 읽어 본다.

3) 연습 · 활용 단계

학습자들에게 유의어군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유의어군의 연습 문제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 연습을 통한 어휘 확장으로 유의어군 빈칸 채우기나 연결하기, 학습한 유의어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 그림을 보고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대화문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연습 문제는 학습자가 유의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문맥에 어울리는 유의어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 배운 유의어군 사용법과 더불어 어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은 초급 단계에서 유의어를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이다.

<표 24> 초급 단계에서 유의어 연습 활동 제시

1. 다음 <보기>에서 관련된 비슷한 말을 찾아 번호를 쓰시오.

① 아주 ② 아름답다 ③ 공부하다 ④ 거리 ⑤ 다시 ⑥ 같이 ⑦ 요즘 ⑧ 혼자

너무 _____

함께 _____

배우다 _____

요즘 _____

길 _____

예쁘다 _____

2. 다음 문장 안에 알맞은 어휘를 넣으시오.

요즘, 같이, 배우다, 너무, 거리, 혼자, 많이, 조금, 아름답다

1. ()에는 사람이 많아요.

2. 컴퓨터를 () 컴퓨터 학원에 갔어요.

3. () 감기가 유행이에요.

4. 우리 () 영화 보러 갈까요?
5. 지연 씨, () 예뻐요.
6. 단풍이 ().

3. 다음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시오.

<보기> 어제는 친구와 같이 서점에 갔어요. (같이)

- 1) 학교에서 집까지 _____ (너무)
- 2) 영어를 _____ (공부하다)
- 3) 가족이 _____ (함께)
- 4) 그녀의 얼굴이 _____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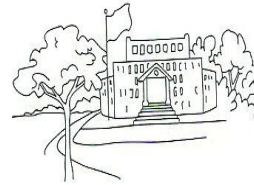
4. 다음 그림을 보고 유의어를 활용해 대화문을 만들어보십시오. 이야기해 보시오.



(같이-함께)



(요즘-요사이)



(길-도로)

본문에 나온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학습자 간의 묻고 대답하기를 통해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유의어군을 사용해 만든 대화문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요즘 있었던 일’에 대해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글쓰기를 시킨다.

4)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날 배운 유의어군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유의어군을 활용하여 학습자들끼리 이야기하게 한다. 역할 놀이를 통해 실제 생활에 연계된 학습이 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질문하

고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3.3.2. 중·고급 수업 모형

1) 도입 단계

중·고급 단계에는 유의어 교육을 하기 위해 중·고급 단계에 맞는 본문을 만들고, 이 본문을 바탕으로 유의어의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본문에 맞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산 경험이 있는지 물어봄으로써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도록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그날 배워야 할 유의어군을 노출시키고, 유의어군의 공통적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

① 본문 내용

수미: 조이 씨, 옷이 예쁘네요.

조이: 고마워요. 그런데 저한테 좀 커 보이지 않아요?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좀 커서 수선하려고요.

수미: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샀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조이: 학교 근처에 있는 옷 가게에서 구입했어요.

수미: 그래요? 가격이 얼마예요?

조이: 삼만 원이에요. 요즘 제일해요. 그래서 값이 싼 거예요.

한번 가 보세요.

수미: 정말요? 감사해요.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본문 내용을 들려주고, 본문에 나오는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질문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이 본문에 나온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제시 · 설명 단계

본문에 나온 유의어군 중에서는 <고맙다-감사하다>, <사다-구입하다>, <근처-부근-옆-주변-주위>, <가게-상점>, <요사이-요새-요즘-최근>, <싸다-저렴하다> 등은 이미 앞 단계에서 학습하였음을 주지시킨다. 그리고 그날 학습해야 할 <예쁘다-아름답다-곱다>, <수선하다-수리하다>, <값-가격-금액-요금> 등은 유의어의 공통적 의미와 의미 차이를 예문을 통해 설명한다.

(* 표시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임)

- (12) a. 꽃이 참 예쁘군요/아름답군요/ * 곱군요.
 b. 외로운 한국 생활에서 * 예쁜/아름다운/ * 고운 우정을 느꼈다.
 c. 한복 색이 정말 * 아름답네요/ * 예쁘네요/곱네요.
- (13) a. 집을 고치러/수리하러/ * 수선하러 온 사람이에요.
 b. 자동차를 고치는데/수리하는데/ * 수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c. 언니의 옷을 수선해서/ * 수리해서/고쳐서 입었어요.
- (14) a. 말만 잘하면 그 아저씨는 물건 값/가격/ * 요금/ * 금액을 잘 깎아 준다.
 b. 요즘 강남의 땅이 한 평에 값/ * 가격/ * 요금/ * 금액이 얼마예요?
 c. 외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몇 번 짧은 전화를 했을 뿐인데 전화 * 값/ * 가격/요금/ * 금액이 많이 나왔다.
 d. 이 차를 사느라 대출받은 * 값/ * 가격/ * 요금/금액을 갚기가 힘들다.

위의 예문 (12a)와 (12b)에서 꽃과 연어 관계인 ‘예쁘다, 아름답다’는 어울리지만 ‘곱다’는 어색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12c)에서는 한복의 색은 ‘아름답다’보다는 ‘곱다, 예쁘다’가 어울린다.⁵⁵⁾ (13a)와 (13b)에서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로서 ‘수리하다, 고치다’는 주로 기계나 전자제품, 집 등의 문장에서는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13c)에서는 옷과 연어 관계인

55) 김정현(2007)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한복을 보고 ‘곱다’라는 표현을 많이 씀으로 한복이 다른 나라의 옷처럼 그 색과 느낌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순수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는 데서 오는 미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보다는 ‘곱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수선하다’와 어울린다. ‘수선하다’는 주로 옷이나 구두와 연어 관계를 가지므로 <수리하다-고치다-수선하다>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4a)에서 ‘값, 가격’은 물건 사고 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로 ‘깎다’와 연어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요금, 금액’은 어울리지 않는다. (14b)에서는 ‘땅, 아파트, 쌀, 책’ 등의 명사와는 ‘값’과 어울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14c)에서는 시설을 쓰거나 구경을 하는 값으로 내는 돈으로 ‘요금’만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14d)에서는 대출과 어울리는 명사 어휘는 ‘금액’과 연어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연어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유의어 교육에 있어서 연어 정보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시·설명 단계에서는 유의어군의 의미와 용법을 설명한다. 실물을 통한 유의어군 제시가 필요한 경우, 그림 카드나 단어 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고급 단계에서는 이미 배웠던 유의어군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까지 알게 한다.

3) 연습·활용 단계

연습 단계에서는 새로 학습한 유의어군의 공통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의미 차이까지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의어군의 연습 문제는 학습자들이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연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연습 단계에서는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연습, 유의어의 의미가 다른 것 찾기, 유의어군 빈칸 채우기나 연결하기, 학습한 유의어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를 할 수 있다. 활용 단계에서는 그 날 학습한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대화문 만들기 등을 통해 유의어 확장을 할 수 있다. 또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 주고 유의어군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한다. 나아가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역할 놀이를 통해 실제 생활과 연계된 학습이 되도록 유도한다. 다음은 유의어를 연습할 수 있는 연어 정보이다.

<표 25> 연어 정보를 활용한 유의어 연습

예쁘다	아름답다	곱다
꽃이 예쁘다	마음씨가 아름답다	빛깔이 곱다
얼굴이 예쁘다	사랑이 아름답다	색이 곱다
여자가 예쁘다	삶이 아름답다	모습이 곱다

	우정이 아름답다	자태가 곱다	
예쁜 웃음 예쁜 이름 예쁜 인형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고운 노을 고운 소리 고운 손	
고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기계를 고치다 수도를 고치다 집을 고치다 컴퓨터를 고치다	기계를 수리하다 텔레비전을 수리하다 집을 수리하다	구두를 수선하다 옷을 수선하다	
가격	값	요금	금액
가격을 내리다 가격을 올리다 가격을 깎다 가격을 알아보다	값이 뛰다 값이 저렴하다 값이 오르다 값을 계산하다 값을 매기다	요금을 내다 요금을 지불하다 요금을 받다	금액이 엄청나다 금액이 정확하다 금액을 줄이다

위와 같이 <예쁘다-아름답다-곱다>는 유의어군이지만 연어 관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이나 삶과 연어 관계를 갖는 것은 ‘아름답다’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일’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예쁜 삶, 예쁜 일, 고운 삶, 고운 일’은 어색한 문장이 된다.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는 연어 정보를 통해 학습하고, 유의어군의 격자표를 통해 연습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나 그룹 활동을 통해 유의어군의 격자표의 빈칸을 메울 수 있다. 이것을 보고 교사는 학습자가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고급 단계에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연습하기 위한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군 연습 격자표이다.

<표 26> 유의어군 연습의 격자표

	예쁘다	아름답다	곱다
얼굴이~			
색깔이~			
~우정		○	
~삶			

	고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집을~	○	○		
구두를~				
옷을~				
	가격	값	요금	금액
물건	○	○		
전화				
대출				

중·고급 단계에서 아래의 연습 활동을 통해 유의어 연습을 할 수 있다. 연습 활동을 한 후 학습자 간의 묻고 대답하기를 통해 본문에 나온 유의어를 문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표 27> 중·고급 단계에서 유의어 연습 활동 제시

1. 다음 문장 안에 알맞은 유의어를 넣으세요.

예쁘다, 아름답다, 곱다, 수리하다, 고치다, 수선하다, 값, 가격, 요금, 금액

- 1) 버스 ()이 많이 올랐어요.
- 2) 외로운 한국 생활에서 ()우정을 느꼈다.
- 3) 어제 옷을 샀는데 조금 커요. 세탁소에서 () 맡겼어요.
- 4) 대출 ()을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어제 세탁기가 고장 나서 세탁기를 고치는 사람을 불렀어요.

- ① 수선하는 ② 수리하는 ③ 고장 나는 ④ 만지는

3. 다음 <보기>에서 () 안에 알맞은 유의어를 쓰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름답다, 곱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값, 가격, 요금, 금액

- 1) 한복-색깔-()
- 2) 컴퓨터-고장 나다-() A/S 센터-맡기다
- 3) 지하철-오르다-걱정하다-()
- 4) 옷-크다-세탁소-()

4. 다음 글을 읽고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오랜만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여러 가지 옷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 있었다. 그 옷이 커서 OO 세탁소에서 ㉠고쳐서 입었던 기억이 난다. OO 세탁소는 유행이 지난 옷을 수선해서 새 옷처럼 만들어 주었다.

()

5. 다음 그림을 보고 유의어를 활용해 대화문을 만들어서 이야기 해 보세요.



■ 대구시 대중교통요금 (단위: 원)

	현			조 정 안		
	일반인	중고생	초등생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일반버스	교통카드	800	550	950	670	400
	현 금	900	600	1,100	800	500
좌석버스	교통카드	1,200	1,000	950	670	400
	현 금	1,300	1,300	1,100	800	500
급행버스	교통카드	1,200	1,000	1,300	910	650
	현 금	1,300	1,300	1,500	1,100	800

	1구역		2구역		구역요금제 제외	
	일반인	초등생	일반인	초등생		
지하철	교통카드	720	810	950	670	400
	현 금	800	900	450	1,100	800

<예쁘다-아름답다-곱다> <수리하다-수선하다-고치다> <값-가격-요금>

4) 마무리 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 주고, 그날 학습한 유의어군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그날 학습한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와 용법을 다시 설명 해 주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제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나타나는 유의어군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의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단계별 유의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학습 단계별 유의어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의어군의 수는 초급 단계에서 120개군, 중급 단계에서 163개군, 중·상급 단계에서 189개군, 고급 단계에서 204개군 등으로 나타났다. 품사별로 분류하면 명사 247개군, 동사 235개군, 형용사 110개군, 부사 84개군 등 유의어군의 수는 명사 > 동사 > 형용사 > 부사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유의어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급 단계에서는 준비 관계에 따른 유의어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초급 단계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히 안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같은 유의어가 초급과 중급 단계에서 반복 제시되었다. 유의어군의 사용 빈도가 높다하더라도 학습 단계에 따른 유의어 변별 능력을 고려하여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한자어 유의어군은 고급 단계로 갈수록 그 어휘량이 증가하였다. 고급 단계로 갈수록 한자를 이용한 어휘 확장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고급 단계에서는 교재의 「새 단어」 부분에서 그 단원에 새로 학습하는 유의어의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문장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어 교재에 단계별 유의어 목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유의어 목록에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는 예문과 유의어의 연어 관계 정보 등이 단계별로 제시된다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수업 시간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의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유의어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능력시험 제11

회부터 제14회까지의 살펴본 결과 다의어 및 반의어보다 유의어에 대한 문항수가 많았다. 이는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들의 유의어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유의어를 학습해야 하며, 유의어 학습은 모든 언어 학습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유의어 교육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유의어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교사에게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유의어 지도가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한국어 수업 시간에 유의어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사들은 효과적인 유의어 교육을 위하여 학습 단계별 유의어 목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유의어 교수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유의어 교육을 위해 문장에서 유의어를 치환해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는 ‘치환 검증법’을 이용한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어를 광의의 어휘적 ‘공기 관계’로 보고, 연어 관계를 이용하여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어 관계를 이용한 유의어 교육을 한다면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연어는 고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문법적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유의어 교육 방안을 고려하여 초급, 중·고급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유의어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어 교육에서 유의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시한 기준만으로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유의어 교육을 모두 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유의어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유의어 학습을 위한 교재 편찬뿐 아니라 학습 방법, 도구의 개발 등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재은(2009), “한국어 어휘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초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유의어 지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화(1997), “[체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연구』 Vol. 8 No. 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91~224쪽.
- 강현화(2001),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Vol. 12 No.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7쪽.
- 강현화(2005), “어휘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70~112쪽.
- 강현화(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감정 기초형용사의 유의관계 변별 기제 연구-기쁨, 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통합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Vol. 17, 한국어의미학회, 43~64쪽.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광해(1987), “국어 유의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83~199쪽.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광해(1998),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Vol. 26 No. 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5~40쪽.
- 김광해(1999), “형용사 유의어의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아름답다-추하다’군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Vol. 27 No. 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605~631쪽.
- 김광해(2000), 『비슷한 말·반대말 사전』, 박이정.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 김광해(2008), 『어휘 현상과 교육』, 박이정.
- 김상영(2002),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유의어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화(1993), “동사 유의어 연구 1 달리다, 뛰다”, 『어문집』 Vol. 29 No. 1, 부산교육대학교, 31~52쪽.

- 김성화(1994), “동사 유의어 연구 2 짓다, 만들다”, 『어문학』 Vol. 55, 한국어문학회, 125~146쪽.
- 김성화(1994), “동사 유의어 연구 3 잡다, 쥐다”, 『어문학교육』 Vol. 16, 한국어문교육학회, 59~92쪽.
- 김성화(1995), “동사 유의어 연구 6 건디다, 찹다”, 『어문집』 Vol. 31 No. 1, 부산교육대학교, 19~47쪽.
- 김옥녀(1994), “동사 유의어의 의미 분석”, 『어문학교육』 Vol. 16, 한국어문교육학회, 93~133쪽.
- 김용석(1981), “유의어 연구 -그 개념규정과 유형분류”, 『배달말』 Vol. 5 No. 1, 배달말학회, 103~122쪽.
- 김은영(2004), “감정동사 유의어의 의미 연구-‘즐겁다’, ‘무섭다’의 유의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어미학』 Vol. 14, 한국어어미학회, 121~147쪽.
- 김정남(2004),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와 용례 파일 생성 작업에 대하여”, 『比較文化研究』 Vol. 8, 경희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179~204쪽.
- 김정숙(2005), “어휘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31쪽.
- 김정현(2007), “한국어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고빈도 감정 어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기(1999), “유의어의 성립 양상 고찰”, 『한국학연구』 Vol. 1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회, 1~19쪽.
- 김진해(1999), “언어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어어미학』 Vol. 4, 한국어어미학회, 239~279쪽.
- 김진해(2000), 『언어 연구』, 한국문화사.
- 김하수 외(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하수·유현경 외 7명(2007), 『한국어 연어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 나삼일(2008), “의미관계를 이용한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성우 외(2006),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남윤진(2000),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적 연구』, 국어학 총서, 태학사.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Vol. 15 No. 1, 이중언어학회, 207~233쪽.

-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 학습 방안”, 『국어교육』 제109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17~250쪽.
- 문금현(2004),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Vol 15, No. 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5~94쪽.
- 문금현(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미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어미학』 Vol. 16, 한국어 의미학회, 143~177쪽.
- 문금현(2008), “한국어 명사 동음어의 교육 방안”, 『문법교육』 Vol. 9, 한국문법교육학회, 35~74쪽.
- 박서향(2006), “한국어 교재의 의미 분석을 토대로 한 다의어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름(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유의어의 의미 연구 -명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남(2002),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갑(2001), 『국어어미론』, 박이정.
- 박희선(2009), “한국어 교재의 유의어 등급의 표준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갑순(2002), “초등학교 유의어 지도 방법 연구”, 『어문학교육』 Vol. 24, 한국어문교육학회, 157~172쪽.
- 봉미경(2005a), “국어 형용사 유의관계 유형”,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Vol. 1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99~135쪽.
- 봉미경(2005b), “시간부사의 어휘 변별 정보 연구-유의어 ‘방금’과 ‘금방’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Vol. 3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13~139쪽.
- 서상규(2002), “한국어 정보 처리와 연어 정보”, 『국어학』 Vol. 39, 국어학회, 321~360쪽.
- 서상규·유현경·남윤진(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Vol 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7~156쪽.
- 서울대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1』, [주]문진미디어.
- 서울대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2』, [주]문진미디어.
- 서울대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3』, [주]문진미디어.
- 서울대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4』, [주]문진미디어.
- 성명희(2003), “상호작용 교수모형”, 『현대영어교육』 Vol. 4 No. 1, 현대영어교육학

회, 92~109쪽.

- 송기철(2003), “어휘 특성에 따른 어휘 지도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주·최준(2008),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사전 편찬을 위한 표제어 선정 및 기술 방안에 대한 연구”, 『어문논총』 Vol. 48, 한국문학언어학회, 1~26쪽.
- 신명선(2004), “유의어 변별 능력과 국어적 사고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구분,분류, 분석, 구별’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Vol. 22, 한국어학회, 215~243쪽.
- 신은경(2005),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방안 연구 : 유형별 어휘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경·김춘주·이경희(2006), 『한국어 어휘 연습』, 교육진흥연구회.
- 신현숙(1998), “한국어 어휘 교육과 의미 사전”, 『한국어교육』 Vol. 9 No.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5~103쪽.
- 양명희(2007), “국어사전의 유의어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Vol. 22, 한국어의미학회, 165~184쪽.
- 오수진(2006), “일본어 유의어의 의미구분에 관한 고찰: 동사유의어 10쌍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혜숙(1995), “영어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어휘상 오류분석”, 『이중언어학』 Vol. 12 No. 1, 이중언어학회, 383~399쪽.
- 이광호(2002), “유의어 정도성 측정을 위한 집합론적 유형화”, 『문학과 언어』 Vol. 24, 문학과언어연구회, 57~78쪽.
- 이동혁(2004), “국어 연어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연경(2009), “시트콤을 활용한 한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6), “유의어 지도 방법 연구: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아(2005), “중국어 동사유의어 오류분석을 통한 중국어 효율적 지도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승(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위한 어휘 교육 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1993), 『국어학 개설』, 학연사.
- 이정미(2007), “중국어 유의어의 의미론적 분석 및 지도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2), “한국어 오류 판정과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Vol. 13 No.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5~197쪽.
- 이정희(2002a), “한국어 오류 판정과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Vol. 13 No.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5~197쪽.
- 이정희(2002b),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혜(2006), “심리형용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사전 기술 연구:언어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우(1994), 『한국어 교육용 어휘 연구』, 국학자료원.
- 이충우(1997), “어휘 교육과 어휘의 특성”, 『국어교육』 No. 9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83~108쪽.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탐출판사.
- 임지아(2005),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교육용 어휘 분석 -유의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 임지아(2006),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성(2008),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동사 유의어 습득에 대하여”, 『일본어교육』 Vol 4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99~120쪽.
-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 교육”, 『한국어교육』 Vol. 10 No.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5~281쪽.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박이정.
- 진기호(2006), “어휘 의미를 활용한 유의적 문형 교수 방안”, 『한국어교육』 Vol. 17 No.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95~413쪽.
- 차숙정(2005),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아(2007), “한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희(2006),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 최재희(2007), 『한국어 의미론 강의』 (강의분), 조선대학교 출판부.
- 최혜령(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 어휘오류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송화(2001), “말뭉치와 학습자 오류를 이용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 한송화·강현화(2002), “언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Vol. 15 No. 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5~318쪽.

- 한영균(2002), “어휘 기술을 위한 연어정보의 추출 및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국어학』 Vol. 39, 국어학회, 137~171쪽.
- 한정순(1994), “근대국어 유의어에 대하여: 유의어 의미분석 및 유형분류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양(2009), “영어로 진행되는 과업 중심 초등영어 수업의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후문옥(2003), “중국어인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own, H.D.(2001),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Prentice-Hall, 이흥수 외 공역(2002),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 Byrne, D. (1986), *Teaching Oral English*. Essex:Longman.
- Collinson, W, E and Priebisch(1939), *The German Language*.
- Fries, Charles C.(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Jackson, H.(1988), *Words and Their Meaning*, New York : Longman.
- Martin, M.(1984), *Advanced vocabulary teaching : The problem of synonyms*, <The Modern Language Journal>68(2).
- Nida, E.A.(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조항범 역(1990), 『의미분석론』, 탑출판사.
- Ullmann, S.(1962),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 Basil Blackwell(남성우 역(1987)).
- Willkins, D. A. (1972),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Edward Arnold.

<부록1> 서울대학교 교재 단계별 유의어 목록

명사 유의어군		(초급1)
가게(1) - 상점	순서(1) - 과정 - 차례	
가족(1) - 식구	시간(1) - 시일 - 일시 - 일자 - 때 -	
값(1) - 가격 - 금액 - 대금 - 액수 -	기간 - 날짜	
요금(1) - 정가	식당(1) - 음식점	
강의(1) - 수업(1)	아가씨(1) - 처녀 - 섹시	
개월(1) - 달	아래(1) - 밑	
거리(1) - 길(1) - 도로	아버님(1) - 아버지(1) - 아빠	
거스름돈(1) - 잔돈	아주머니(1) - 아줌마(1)	
걸다(1)- 걸어가다 - 걸어오다	안(1) - 속	
계절(1) - 철	어머니(1) - 어머님(1) - 엄마	
극장(1) - 영화관	어제(1)- 어제께	
나(1) - 저	연습(1) - 훈련	
날씨(1) - 일기 - 기후	옆(1) - 주변 - 근처(1)	
노래(1) - 곡(1)	오늘(1) - 오늘날 - 지금(1) - 현재	
택(1) - 집(1)	오후(1) - 낮	
돈(1) - 현금	외국(1) - 해외	
머리(1) - 머리카락	우리(1) - 저희	
명(1) - 분(1)	운전사(1) - 운전자 - 운전자 - 기사	
물건(1) - 물품 - 상품 - 제품	음식(1) - 음식물 - 식품	
밖(1) - 바깥	이름(1) - 존함 - 성명 - 성함	
밥(1) - 진지	일(1) - 일거리 - 업무	
사람(1) - 인간 - 인물	전철(1)- 기차 - 열차 - 지하철(1)	
생일(1) - 생신	썸(1) - 정도 - 즈음	
서점(1) - 책방(1)	친구(1) - 동무 - 벗	
선생(1) - 훈장	혼자(1) - 단독	
손님(1) - 객 - 고객	후(1) - 이후	
숙제(1) - 과제		
동사 유의어군		(초급1)

<p>가다(1) - 나가다(1) - 외출하다(1)</p> <p>가르치다 (1)- 지도하다</p> <p>게시다(1) - 있다(1)</p> <p>고르다(1) - 뽑다 - 선택하다 - 채택하다 - 택하다 - 택일하다</p> <p>공부하다(1) - 배우다(1) - 익히다 - 학습하다</p> <p>구경하다(1) - 관광하다 - 관람하다 - 유람하다</p> <p>끝내다(1) - 다하다 - 맺다 - 그만두다 - 마치다 - 그치다 - 멈추다 - 중단하다 - 포기하다</p> <p>내다(1) - 지급하다 - 치르다 - 납부하다</p> <p>내리다(1) - 인하하다</p> <p>도착하다(1) - 상륙하다 - 착륙하다</p> <p>돕다(1) - 거들다(5)</p> <p>드시다(1) - 먹다(1)- 잠수시다(1) - 식사하다(1)</p> <p>떠나다(1) - 출동하다 - 출발하다(1)</p> <p>만나다(1) - 면회하다 - 뵙다</p>	<p>만들다(1) - 조립하다 - 맞추다</p> <p>바꾸다(1) - 치환하다 - 갈다 - 교환하다 - 대체하다</p> <p>사다(1) - 구입하다</p> <p>살다(1) - 생존하다 - 존재하다</p> <p>수영하다(1) - 헤엄치다</p> <p>시작하다(1)- 착수하다</p> <p>싫어하다(1) - 미워하다</p> <p>쓰다(1) - 적다 - 기록하다</p> <p>오다(1)- 나오다(1)</p> <p>오르다 (1)- 상승하다</p> <p>운전하다(1) - 운항하다 - 몰다</p> <p>이야기하다(1) - 얘기하다 - 대화하다 - 말하다</p> <p>일하다(1) - 근무하다</p> <p>읽다(1) - 보다</p> <p>자다(1) - 주무시다</p> <p>주다(1) - 드리다(1)</p> <p>준비하다(1) - 대비하다</p> <p>축하하다(1) - 축복하다</p> <p>틀리다(1) - 빗나가다</p>
---	--

형용사 유의어군 (초급1)	
<p>감사하다(1) - 고맙다(1)</p> <p>고프다(1) - 배고프다 - 시장하다</p> <p>덥다(1) - 무덥다 - 따뜻하다 - 뜨겁다 - 포근하다 - 후덥지근하다</p> <p>따뜻하다(1) - 뜨겁다 - 포근하다 - 후덥지근하다 - 덥다 - 무덥다</p> <p>많다(1) - 상당하다 - 수두룩하다 - 수많다 - 과다하다</p> <p>맞다(1) - 옳다 - 바르다 - 올바르다 - 정확하다 - 확실하다 - 명확하다 - 엄정하다</p>	<p>빠르다(1) - 신속하다 - 재빠르다</p> <p>쉽다(1) - 손쉽다</p> <p>슬프다(1) - 우울하다 - 울적하다</p> <p>심심하다(1) - 지루하다 - 재미없다(1) - 무료하다</p> <p>아름답다(1)- 아리뭇다 - 예쁘다(1) - 어여쁘다 - 곱다</p> <p>아프다(1) - 편찮다</p> <p>작다(1) - 조그맣다</p> <p>재미있다(1) - 흥미있다 - 흥미진진하다</p>

멀다(1) - 까마득하다 미안하다(1) - 죄송하다 바쁘다(1) - 급하다 - 위급하다 반갑다(1) - 기쁘다(1) 복잡하다(1) - 분비다 - 북적거리다 - 분주하다 - 번잡하다 - 번잡스럽다	즐겁다(1) - 신나다 - 흥겹다 - 기쁘다 출다(1) - 서늘하다 - 시원하다 - 선선 하다 - 쌀쌀하다 - 크다(1) - 거대하다 - 비대하다 - 커다 랫다 피곤하다(1) - 피로하다
---	---

부사 유의어군		(초급1)
같이(1) - 함께(1)		
다시(1) - 또		
더(1) - 더욱 - 더욱이 - 훨씬		
또(1) - 또한 - 아울러 - 그리고		
많이(1) - 넉넉히 - 충분히		
매우(1) - 몹시 - 무척 - 굉장히 - 극히 - 꽤 - 너무 - 너무너무 - 대단히 - 상 당히 - 아주(1) - 지극히 - 지독스레 - 참(1)		
모두(1) - 다(1) - 빠짐없이 - 전부(1) - 전체 - 온통 - 일체		
빨리(1) - 신속히 - 쏜살같이 - 얼른 - 재빨리 - 즉시 - 급속히 - 급히		
아직(1) - 여태		
요즈음(1) - 요즘 - 최근 - 근래 - 요사이 - 요새		
조금(1) - 좀(1) - 약간 - 다소		
천천히(1) - 차츰 - 슬슬 - 점점 - 차차 - 서서히		

명사 유의어군		(중급2)
가지(2) - 종류	성격(2) - 성미 - 성질	
개월(2) - 달(2)	성함(2) - 이름 - 존함 - 성명	
경기(2) - 시험	시간(2) - 시각	
곳(2) - 군데	아내(2) - 집사람 - 부인 - 색시	
광고(2) - 선전	아들(2) - 아드님	
기간(2) - 날짜 - 시간 - 시일 - 일시 - 일자 - 때	어른(2) - 윗사람	
기분(2) - 감정 - 느낌 - 감각	얼굴(2) - 낯	
기사(2) - 운전사 - 운전수 - 운전자	여자(2) - 여성(2) - 계집	

기후(2) - 날씨 - 일기 나라(2) - 조국 - 국가 나이(2) - 연세 남자(2) - 사내아이 - 소년 - 신사 - 남성 낮(2) - 오후 내년(2) - 이듬해 동네(2) - 마을 동안(2) - 사이 - 간 동전(2) - 잔돈 딸(2) - 따님 뜻(2) - 의미 마음(2) - 심정 - 내면 - 가슴 말씀(2) - 말 몸(2) - 육체 - 온몸 - 육체 - 전신 무늬(2) - 모양 문화(2) - 문명 - 문물 밑(2) - 아래 색(2) - 색깔(2) - 색상 - 색채 생활(2) - 인생 - 삶	연세(2) - 나이 예약(2) - 예매 오래간만(2) - 오랜만 오랫동안(2) - 한동안 - 한참(2) 올해(2) - 금년 - 금년도 음료수(2) - 음료 이제(2) - 인제 일(2) - 일거리 - 업무 잘못(2) - 불찰 - 실수 점원(2) - 종업원 정가(2) - 가격 - 값 - 금액 - 대금 - 액수 - 요금 정답(2) - 해답 정말(2) - 진짜 - 사실 - 실상 - 실제 조건(2) - 여건 주일(2) - 일요일 진지(2) - 밥 차비(2) - 교통비 처음(2) - 최초 - 시초 현금(2) - 현찰 - 돈
--	---

동사 유의어군 (중급2)	
가지다(2) - 차지하다 걱정하다(2) - 고민하다 - 근심하다 - 염려하다 건너다(2) - 건너가다(2) - 넘다 걸리다(2) - 소요되다 구하다(2) - 찾다 깎다(2) - 덜다 - 빼다 - 줄이다 끊다(2) - 자르다 나다(2) - 발생하다 - 생겨나다 - 생기	생각하다(2) - 사고하다 세우다(2) - 주차하다 - 대다 소개하다(2) - 알선하다 시키다(2) - 주문하다(2) 쓰다(2) - 이용하다 - 부리다 - 사용하다 씻다(2) - 닦다 알다(2) - 깨닫다 - 느끼다 - 인식하다 외우다(2) - 암기하다

<p>다 - 일어나다 - 터지다 나오다(2) - 나서다 나타나다(2) - 드러나다 - 등장하다 - 보이다 - 출현하다 넣다(2) - 담다 - 치넣다 닦다(2) - 씻다 닫다(2) - 폐업하다 돌다(2) - 순환하다 뛰다(2) - 달리다 마치다(2) - 그치다 - 멈추다 - 끝내다 - 다하다 - 맺다 - 손떼다 - 그만두다 - 중단하다 - 포기하다 막히다(2) - 밀리다 말하다(2) - 이야기하다 - 얘기하다 - 대화하다 문다(2) - 여쭙다 - 여쭙다 - 질문하다 - 문의하다 믿다(2) - 신뢰하다 - 확신하다 보내다(2) - 부치다(2) 뵙다(2) - 만나다 - 면회하다 붙이다(2) - 달다 - 장착하다 - 부착하다 벨리다(2) - 꾸다 - 대출하다</p>	<p>운전하다(2) - 운항하다 - 몰다 울다(2) - 짓다(2) 의논하다(2) - 협의하다 - 상의하다 이해하다(2) - 알아듣다 잡다(2) - 쥐다 - 붙들다 전하다(2) - 남기다 조심하다(2) - 주의하다(2) 주무시다(2) - 자다 죽다(2) - 돌아가시다 - 사망하다 - 사멸하다 지나다(2) - 지나치다 - 거치다 - 들르다 질문하다(2) - 문의하다 - 묻다 - 여쭙다 - 여쭙다 짓다(2) - 만들다 - 빚다 참가하다(2) - 참석하다 찾다(2) - 구하다 팔다(2) - 판매하다 피다(2) - 열리다 필요하다(2) - 요하다 힘들다(2) - 곤란하다</p>
--	--

형용사 유의어군 (중급2)	
<p>같다(2) - 똑같다 - 평등하다 피롭다(2) - 속상하다 - 애타다 기쁘다(2) - 즐겁다 - 신나다 - 흥겹다 길다(2) - 기나길다 까맣다(2) - 까맣다 - 새까맣다 남다(2) - 충분하다 - 넉넉하다 - 풍부하다 - 풍요롭다 넓다(2) - 광범위하다 노랗다(2) - 누렇다</p>	<p>빨강다(2) - 붉다 쌀쌀하다(2) - 춥다 - 서늘하다 - 시원하다 - 선선하다 씩씩하다(2) - 늠름하다 어울리다(2) - 상응하다 - 적당하다 - 적절하다 - 맞다 - 알맞다 외롭다(2) - 허전하다 - 쓸쓸하다 익숙하다(2) - 능숙하다 자세하다(2) - 꼼꼼하다 - 철저하다</p>

<p>닮다(2)- 비슷하다</p> <p>뜨겁다(2) - 포근하다 - 후덥지근하다 - 덥다 - 무덥다 - 따뜻하다</p> <p>맞다(2) - 알맞다 - 어울리다 - 상응하다 - 적당하다 - 적절하다</p> <p>멋있다(2) - 멋지다</p> <p>모자라다(2) - 부족하다 - 적다</p> <p>무섭다(2) - 겁나다</p> <p>밝다(2) - 환하다</p> <p>비슷하다(2) - 비슷비슷하다 - 상당하다</p>	<p>젊다(2) - 어리다</p> <p>정확하다(2) - 확실하다 - 명확하다 - 엄정하다 - 맞다 - 옳다 - 바르다 - 올 바르다</p> <p>조용하다(2) - 고요하다</p> <p>죄송하다(2) - 미안하다</p> <p>차갑다(2) - 차다(2)</p> <p>창피하다(2) - 무안하다 - 부끄럽다</p> <p>파랗다(2)- 푸르다(2)</p> <p>편하다(2) - 편리하다 - 편안하다</p> <p>하얗다(2) - 희다</p>
--	--

부사 유의어군	(중급2)
가장(2) - 제일(2)	
같이(2) - 함께	
곧(2) - 곧바로 - 금방 - 막 - 바로 - 방금	
곧장(2) - 똑바로 - 바로	
그냥(2) - 그저	
나중에(2) - 이따가	
날마다(2) - 매일 - 나날이	
너무(2) - 너무너무 - 대단히 - 매우 - 몹시 - 무척 - 상당히 - 아주 - 지극히 - 지독스레	
똑바로(2) - 바로 - 곧장 - 굉장히 - 극히 - 꽤	
마침내(2)- 결국 - 끝내 - 드디어 - 비로소	
먼저(2) - 앞서 - 우선 - 일단 - 일찍이	
벌써(2)-이미	
별로(2) - 그다지	
아마(2) - 어쩌면	
약간(2) - 다소 - 조금 - 좀	
얼른(2) - 재빨리 - 즉시 - 급속히 - 급히 - 빨리 - 신속히 - 쏜살같이	
자세히(2) - 깊이	

잠깐(2) - 잠시 - 당분간
전혀(2) - 절대로 - 통 - 결코
조용히(2) - 가만히 - 몰래
특히(2) - 유난히 - 특별히
하여튼(2) - 아무튼 - 어쨌든
하지만(2) - 그러나 - 그렇지만
항상(2) - 늘 - 언제나
훨씬(2) - 더 - 더욱 - 더욱이

명사 유의어군 (중급3)	
결(3) - 밖 - 표면	사정(3) - 형편 - 상태 - 상황- 신세 - 실정 - 현황 - 현상
관심(3) - 흥미	산꼭대기(3) - 정상
교통비(3) - 차비	생신(3) - 생일
근처(3) - 부근 - 옆 - 주변- 주위	서당(3) - 학교
글씨(3) - 글자(3)	성명(3) - 성함 - 이름 - 존함
금액(3) - 대금 - 액수 - 요금 - 정가 - 가격 - 값 - 금액	성적(3) - 학점
기계(3) - 기구	세계(3) - 세상
기온(3) - 온도	소식(3) - 안부
길(3) - 도로	속(3) - 안
냄새(3) - 향기 - 향	손자(3) - 손주 - 손녀
노인(3) - 늙은이	시일(3) - 일시 - 일자- 때 - 기간 - 날짜 - 시간
놈(3) - 녀석	양(3) - 용량 - 수량
농담(3) - 우스갯소리	열차(3) - 전철 - 지하철 - 기차
달(3) - 개월	온도(3) - 기온
당신(3) - 자네(3) - 너	운(3) - 행운 - 복
도둑(3) - 강도	월급(3) - 임금 - 보수- 봉급
동창(3) - 동기생	이유(3) - 근거 - 까닭 - 영문- 원인
등(3) - 따위	이후(3) - 후
뜰(3) - 마당(3)	자신(3) - 본인 - 자기
모습(3) - 모양(3)	장소(3) - 위치 - 자리 - 곳
모임(3)- 단체	

몸(3) - 육체 - 온몸 - 육체 - 전신	재료(3) - 원료
몸짓(3) - 행동 - 활동- 동작	조건(3) - 여건
방법(3) - 방식	차례(3) - 순서 - 과정
병(3) - 병환	처녀(3) - 색시 - 아가씨
보기(3) - 본보기 - 예	추석(3) - 한가위
보통(3) - 보편 - 일반	크기(3) - 규모
비용(3) - 돈 - 경비	풍습(3) - 풍속
사건(3) - 사고(3) - 일	해(3) - 태양
사실(3) - 실상 - 실제 - 정말- 진짜	해외(3) - 외국
사이(3) - 중 - 틈 - 도중	햇빛(3) - 햇살 - 햇벌
	향기(3) - 향 - 냄새

동사 유의어군		(중급3)
걸리다(3) - 소요되다	붙다(3) - 합격하다	
계속하다(3) - 연속하다 - 잇다- 지속하다	빨다(3) - 세탁하다	
고생하다(3) - 애먹다	빼다(3) - 제외하다	
고장나다(3) - 망가지다	빼앗다(3) - 뺏다 - 털다 - 훔치다	
고치다(3) - 수리하다 - 수선하다	뽑다(3) - 빼다	
그만두다(3) - 마치다 - 그치다 - 멈추다 - 끝내다 - 다하다 - 맺다 - 손떼다 - 중단하다 - 포기하다	사귀다(3) - 교제하다	
깨다(3) - 부수다 - 파괴하다	사용하다(3) - 이용하다(3) - 쓰다	
꺼내다(3) - 내놓다 - 내다	섞다(3) - 합성하다	
꾸미다(3) - 가꾸다	실망하다(3) - 낙심하다	
나다(3) - 발생하다 - 생겨나다 - 생기다(3) - 일어나다(3) - 터지다	싸우다(3) - 다투다	
남기다(3) - 전하다	씩우다(3) - 덮다	
낳다(3) - 생산하다	아끼다(3) - 절약하다	
내다(3) - 제출하다	알리다(3) - 통고하다 - 통지하다	
넘다(3) - 건너다 - 건너가다	알아듣다(3) - 이해하다	
넘어지다(3) - 쓰러지다	여쭙다(3) - 여쭙다 - 질문하다 - 문의하다 - 묻다	
노력하다(3) - 애쓰다 - 힘쓰다	열리다(3) - 개막되다 - 개최되다	
	예금하다(3) - 저금하다	
	예상하다(3) - 예측하다	

놀라다(3) - 소스라치다 놀리다(3) - 비웃다 다투다(3) - 싸우다 달리다(3) - 뛰다 덮다(3) - 가리다 도망가다(3) - 도망치다 돌려주다(3) - 돌려드리다(3) - 갚다(3) 돌아가시다(3) - 사망하다 - 사멸하다 - 죽다 두다(3) - 놓다 들르다(3) - 지나다 - 지나치다 - 거치다 들어가다(3) - 들어서다 - 돌입하다 따다(3) - 뜯다 - 떼다 - 열다 막다(3) - 제약하다 - 제한하다 - 통제하다 - 한하다 - 규제하다 - 금지하다 맡기다(3) - 부탁하다(3) 맡다(3) - 책임지다 - 담당하다 - 지다 모이다(3) - 밀집하다 바뀌다(3) - 달라지다 - 변하다 반대하다(3) - 항의하다 보이다(3) - 출현하다 - 나타나다 - 드러나다 - 등장하다 부딪치다(3) - 부닥치다	옮기다(3) - 이동하다 - 나르다 이기다(3) - 승리하다 - 우승하다 이사하다(3) - 옮기다 이용하다(3) - 부리다 - 사용하다 - 쓰다 자르다(3) - 깎다 - 끊다 찰그다(3) - 채우다 적다(3) - 기록하다 - 쓰다 정리하다(3) - 치우다 정하다(3) - 결심하다 - 결정하다 - 마음먹다 - 작정하다 지키다(3) - 유지하다 쫓기다(3) - 물리다 쫓다(3) - 몰다 차리다(3) - 갖추다 - 구비하다 참다(3) - 견디다 참석하다(3) - 참가하다 쳐다보다(3) - 바라보다 팔리다(3) - 매진되다 포함되다(3) - 함유되다 풀다(3) - 해결하다 - 해소하다 헤어지다(3) - 이별하다 흠치다(3) - 빼앗다 - 뺏다- 털다
---	---

형용사 유의어군	(중급3)
곤란하다(3) - 난감하다 - 난처하다 급하다(3) - 위급하다 - 바쁘다 낫다(3) - 좋다 - 우수하다 - 뛰어나다 - 훌륭하다 똑같다(3) - 평등하다 - 같다 똑똑하다(3) - 뛰어나다 - 영리하다 맑다(3) - 깨끗하다 부드럽다(3) - 매끄럽다	

속상하다(3) - 애타다 - 괴롭다
손쉽다(3) - 쉽다
시끄럽다(3) - 소란하다 - 요란스럽다 - 떠들썩하다
시원하다(3) - 선선하다 - 쌀쌀하다 - 춥다 - 서늘하다
신기하다(3) - 경이롭다 - 놀랍다
신속하다(3) - 재빠르다 - 빠르다
심하다(3) - 지나치다 - 심각하다 - 너무하다
아깝다(3) - 안타깝다 - 서운하다 - 섭섭하다
알맞다(3) - 어울리다 - 상응하다 - 적당하다 - 적절하다 - 맞다
어리다(3) - 젊다
오래되다(3) - 낡다
왜냐하면(3) - 어째서 - 왜
적다(3) - 모자라다 - 부족하다
충분하다(3) - 넉넉하다 - 풍부하다 - 풍요롭다 - 남다
친하다(3) - 가깝다 - 친근하다
특별하다(3) - 특수하다 - 각별하다 - 남다르다 - 독특하다 - 별나다 - 유별하다
튼튼하다(3) - 정정하다 - 건강하다 - 건장하다
편리하다(3) - 편안하다(3) - 편하다
편찮다(3) - 아프다
훌륭하다(3) - 낫다 - 좋다 - 우수하다 - 뛰어나다
회다(3) - 하얗다

부사 유의어군	(중급3)
가만히(3) - 몰래(3) - 조용히	
갑자기(3) - 별안간	
거의(3) - 대부분 - 대개- 대체로 - 보통 - 주로(3)	
곧(3) - 곧바로 - 금방 - 막 - 바로(3) - 방금(3)	
굉장히(3) - 극히 - 꽤 - 너무 - 너무너무 - 대단히 - 매우- 몹시 - 무척 -상당히 - 아주- 지극히 - 지독스레	
급히(3) - 빨리 - 신속히 - 쏜살같이 - 얼른 - 재빨리 - 즉시 급속히	

꼭(3) - 반드시 - 어김없이 - 틀림없이(3)
다만(3) - 단지
대단히(3) - 매우 - 몹시(3) - 무척(3) - 굉장히 - 극히- 꽤 - 너무 - 너무너무 -상당히 - 아주 - 지극히 - 지독스레
더욱(3) - 더욱이 - 훨씬 - 더
도대체(3) - 대체
드디어(3) - 비로소 결국- 끝내
마침(3) - 다행히
만약(3) - 만일 - 행여 - 혹시
매일(3) - 나날이 - 날마다
실컷(3) - 마음껏
아무리(3) - 비록
언제나(3) - 항상 - 늘
우선(3) - 일단 - 일찍이 - 먼저 - 앞서
잠시(3) - 당분간 - 잠깐
정말로(3) - 과연 - 정말
특별히(3) - 특히 - 유난히
혹시(3) - 만약 - 만일 - 행여

명사 유의어군 (고급4)	
가격(4) - 값 - 금액- 대금 - 액수 - 요금 - 정	시기(4) - 시대(4) - 시절(4)
가슴(4) - 내면 - 마음 - 심정	시합(4) - 경기
가운데(4) - 중간 - 중심 - 중앙- 한가운데 - 핵심	식구(4) - 가족
개개인(4) - 각자	신사(4) - 남성 - 남자 - 사내아이 - 소년
결과(4) - 성과	심부름(4) - 시중
관객(4) - 관람객 - 관중	양(4) - 용량 - 수량
교외(4) - 근교	역할(4) - 책임 - 몫 - 구실
국가(4) - 나라 - 조국	연속(4) - 연쇄 - 연결- 연계
규모(4) - 크기	욕심(4) - 욕구
기술(4) - 솜씨 - 기능	원래(4) - 본래
	원인(4) - 이유 - 근거- 까닭

기후(4) - 날씨 - 일기	위치(4) - 자리 - 곳 - 장소
내용(4) - 내역	윗사람(4) - 어른
능력(4) - 실력	은혜(4) - 감사
단체(4) - 모임	음식물(4) - 식품 - 음식
대중(4) - 민중	의식(4) - 이념 - 사상- 정신
덕분(4) - 덕택	인간(4) - 사람 - 인물(4)
동기생(4) - 동창	일생(4) - 평생
뒤(4) - 후	임금(4) - 보수 - 봉급 - 월급
목숨(4) - 생명(4)	임무(4) - 책임(4) - 의무
목적(4) - 목표	자녀(4) - 자식(4)
무시(4) - 괘시	자세(4) - 태도
문화(4) - 문명 - 문물	자신(4) - 본인 - 자기
미래(4) - 앞날 - 장래 - 훗날	정신(4) - 의식 - 이념 - 사상
미소(4) - 웃음(4)	종류(4) - 가지
민중(4) - 대중	주위(4) - 근처 - 부근 - 옆 - 주변
보람(4) - 효과	주택(4) - 가옥 - 집
봉투(4) - 봉지	지식(4) - 학식
분야(4) - 부문 - 부분	지위(4) - 신분
사실(4) - 실상 - 실제 - 정말- 진짜	직장(4) - 일자리
삶(4) - 생활 - 인생	집사람(4) - 부인 - 색시 - 아내
상대방(4) - 상대자 - 상대	집안(4) - 가문
상태(4) - 상황(4) - 신세- 실정 - 현황 - 현상- 사정 - 형편	체중(4) - 몸무게
소감(4) - 감상 - 느낌	충격(4) - 타격
소원(4) - 염원 - 희망(4) - 꿈 - 바람	태양(4) - 해
수명(4) - 목숨	특성(4) - 특징
수준(4) - 정도 - 지경	풍속(4) - 풍습
순간(4) - 삼시간	한동안(4) - 한참(4) - 오랫동안
습관(4) - 버릇	햇빛(4) - 햇볕
승진(4) - 진급	현실(4) - 사실- 실제
	효과(4) - 보람

동사 유의어군		(고급4)
가입하다(4) - 들다	밝히다(4) - 보이다 - 표현하다 - 드러내다	
간섭하다(4) - 끼다(4) - 끼어들다 - 나서다	번지다(4) - 확산되다	
갖다(4) - 차지하다(4) - 가지다	벗어나다(4) - 벗어나가다 - 탈선하다	
값다(4) - 돌려주다(1) - 돌려드리다(1) -	비교하다(4) - 비유하다 - 비하다	
개발하다(4) - 발명하다 - 창조하다 - 창출하다	사라지다(4) - 없어지다	
걸다(4) - 모으다(4) - 회수하다 - 거두다	새우다(4) - 지새우다(4)	
걸치다(4) - 걸다	세우다(4) - 수립하다 - 창립하다	
공경하다(4) - 받들다	실리다(4) - 게재되다 - 나다	
구별하다(4) - 구분하다 - 식별하다	실시하다(4) - 이행하다 - 행하다 - 수행하다 - 시행하다	
구하다(4) - 구조하다	양보하다(4) - 비키다	
금지하다(4) - 규제하다 - 막다- 제약하다 - 제한하다 - 통제하다 - 한하다	얻다(4) - 획득하다	
기르다(4) - 가꾸다 - 키우다	없어지다(4) - 사라지다	
나누다(4) - 분리하다 - 분열하다 - 가르다	연결하다(4) - 체결하다 - 맺다- 잇다	
나서다(4) - 나아가다(4) - 전진하다 - 진출하다	예방하다(4) - 막다	
낱다(4) - 생산하다	외출하다(4) - 나가다	
내놓다(4) - 내다 - 꺼내다	원하다(4) - 축원하다 - 갈망하다 - 바라다	
넘어지다(4) - 쓰러지다	유지하다(4) - 지키다	
늘다(4) - 늘어나다(4) - 증가하다	의존하다(4) - 의지하다 - 기대다	
닥쳐오다(4) - 이르다 - 닥치다	이루다(4) - 이룩하다 - 성취하다 - 실현하다	
달하다(4) - 이르다(4) - 미치다 - 도달하다	잇다(4) - 지속하다 - 계속하다 - 연속하다	
당하다(4) - 받다 - 얻다	자라다(4) - 크다 - 성장하다	
떨다(4) - 빼다 - 줄이다 - 깎다	전하다(4) - 남기다	
돌보다(4) - 보호하다(4)	절약하다(4) - 아끼다	
뒤돌아보다(4) - 돌이키다	조르다(4) - 재촉하다	
들어서다(4) - 돌입하다 - 들어가다	줄다(4) - 줄어들다	
따르다(4) - 수행하다 - 쫓다 - 따라가	줍다(4)-집다	
	증가하다(4) - 늘다 - 늘어나다	

<p>다</p> <p>따르다(4) - 붓다</p> <p>떠오르다(4) - 뜨다 - 돌다</p> <p>떼다(4) - 열다 - 따다- 뜯다</p> <p>만지다(4) - 손대다</p> <p>맺다(4) - 잇다 - 연결하다 - 체결하다</p> <p>문의하다(4) - 묻다 - 여쭙다 - 여쭙다 - 질문하다</p> <p>미치다(4) - 끼치다</p> <p>반복하다(4) - 중복하다 - 거듭하다 - 되풀이하다</p> <p>발생하다(4) - 생겨나다 - 생기다 - 일어나다 - 터지다 - 나다</p>	<p>짓다(4) - 만들다-빚다</p> <p>취급하다(4) - 다루다 - 처리하다</p> <p>태어나다(4) - 탄생하다</p> <p>토론하다(4) - 의논하다 - 논의하다</p> <p>과괴하다(4) - 깨다 - 부수다</p> <p>판단하다(4) - 진단하다</p> <p>포기하다(4) - 그만두다 - 마치다 - 그치다 - 멈추다 - 끝내다 - 다하다 - 맺다 - 손떼다</p> <p>해결하다(4) - 해소하다 - 풀다</p> <p>허락하다(4) - 허용하다 - 승낙하다</p> <p>확산되다(4) - 번지다</p>
---	--

형용사 유의어군 (고급4)	
<p>곱다(4) - 아름답다 - 아리뻑다 - 예쁘다 - 어여쁘다</p> <p>귀찮다(4) - 번거롭다</p> <p>놀랍다(4) - 신기하다 - 경이롭다</p> <p>다양하다(4) - 다채롭다</p> <p>당연하다(4) - 마땅하다</p> <p>독특하다(4) - 별나다 - 유별하다 - 특별하다 - 특수하다 - 각별하다 - 남다르다</p> <p>뛰어나다(4) - 훌륭하다 - 낫다- 좋다 - 우수하다</p> <p>마르다(4) - 메마르다</p> <p>무조건(4) - 무턱대고</p> <p>바람직하다(4) - 바르다 - 옳다</p> <p>불안하다(4) - 초조하다</p> <p>상하다(4) - 썩다</p> <p>섭섭하다(4) - 아깝다 - 안타깝다(4) - 서운하다</p>	<p>심각하다(4) - 너무하다 - 심하다 - 지나치다</p> <p>쓸쓸하다(4) - 외롭다 - 허전하다</p> <p>어울리다(4) - 상응하다 - 적당하다(4) - 적절하다 - 맞다 - 알맞다</p> <p>엄청나다(4) - 대단하다</p> <p>여기다(4) - 치다</p> <p>옳다(4) - 바르다 - 올바르다 - 정확하다 - 확실하다 - 명확하다 - 엄정하다 - 맞다</p> <p>정답다(4) - 다정하다</p> <p>지나치다(4) - 심각하다 - 너무하다 - 심하다</p> <p>풍요롭다(4) - 남다 - 충분하다 - 넉넉하다 - 풍부하다</p> <p>한산하다(4) - 한가하다</p> <p>혹시(4) - 만약 - 만일 - 행여</p> <p>흥미롭다(4) - 흥미있다 - 흥미진진하다 - 재미있다</p>

소용없다(4) - 필요없다	
신나다(4) - 흥겹다 - 기쁘다 - 즐겁다	

부사 유의어군	(고급4)
가끔(4) - 때로	
각각(4) - 따로 - 따로따로	
겨우(4) - 불과(4) - 고작(4)	
결국(4) - 끝내 - 드디어 - 비로소	
결코(4)- 전혀 - 절대로 - 통	
금방(4) - 막 - 바로 - 방금 - 곧 - 곧바로	
끊임없이(4) - 내내 - 죽 - 줄곧 - 쭉 - 계속 - 꾸준히	
끝내(4) - 드디어 - 비로소 - 결국	
대부분(4) - 대개(4) - 대체로 - 보통 - 주로 - 거의	
마지못해(4) - 억지로(4)	
비록(4) - 아무리	
서서히(4) - 천천히 - 차츰- 슬슬 - 점점(4) - 차차(4)	
스스로(4) - 저절로(4)	
아주(4) - 지극히 - 지독스레 - 굉장히 - 극히 - 꽤 - 너무- 너무너무 - 대단히 - 매우- 몹시 - 무척 -상당히	
어쨌든(4) - 하여튼 - 아무튼	
여간(4) - 보통	
여전히(4) - 그대로	
오히려(4) - 차라리(4)	
온통(4) - 일체 - 다 - 모두 - 빠짐없이 - 전부 - 전체(4)	
요새(4) - 요즈음 - 요즘 - 최근(4) - 근래 - 요사이	
일단(4) - 일찍이 - 먼저- 앞서 - 우선	
자주(4) - 흔히(4)	
혹은(4) - 또는	

<부록2> 유의어 교육 현황 설문지

유의어의 예) A 수리하다 - A' 수선하다
B 싸우다 - B' 다투다
C 까다 - C' 벗기다

1. 선생님께서는 유의어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기타

- ‘매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선생님께서는 유의어 지도가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기타

- 유의어 지도가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의어 지도가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선생님께서는 실제 한국어 수업 시간에 유의어를 교육하십니까?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③기타()

4. 선생님께서는 어휘를 지도할 때 유의어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③기타()

5.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질문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문맥을 통해 설명한다.
②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
③그냥 넘어간다.
④기타()

6. 선생님께서는 유의어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 ①비슷하다고 설명(의미의 공통점) ②의미 차이를 설명
③기타()

7. 선생님께서는 유의어 지도는 어느 학습단계부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초급 ②중급 ③고급

7-① 초급단계부터 유의어를 지도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② 중급단계부터 유의어를 지도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③ 고급단계부터 유의어를 지도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선생님께서는 학습 단계에 따른 유의어 목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기타

· ‘매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선생님께서는 유의어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기타

· ‘매우 그렇다’면 유의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렇지 않다’면 유의어 교육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유의어 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어 교육 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주로 담당 단계: 초급 _____ 중급 _____ 고급 _____

현재 담당 단계: 초급 _____ 중급 _____ 고급 _____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과	국어국문학과	학번	20077001	과정	석사
성명	한글 강 수 지	한문 姜 秀 智	영문 Kang Su Ji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화정주공아파트 2동 402호				
연락처	E-mail : molesj@naver.com				
논문 제목	한글: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 교육방안 연구				
	영문: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Synonyms in Education of Korea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0년 8월

저작자: 강 수 지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